



불교충지종

충지종은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통해 참 대승의 정신을 구현하는 생활불교 종단입니다.

창간년도 충기24(1995)년 10월 16일 등록번호 마 2360호 발행인 : 지성(이기식)

The chongji news

구독문의 02-552-1080 불기 2554년 제133호

의식의 장엄화, 의례의 다양화 필요

상장례 및 49재 불사 법요 개정 논의



▲ 효강 종령 예하는 스승들에게 검증된 상장례 의식법을 만들라고 했다.

불교 충지종은 11월 23일 부산 정각사에서 '상장례 및 49재 천도불사 의식'의 주제로 승단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는 효강 종령예하와 지성 통리원장, 인선 총무부장, 시정 재무부장, 수현 교정부장, 우인 사회부장 등 집행부와 대원 중앙총회의회장, 법우 총청전라

교구장, 지광 대구경북 교구장, 지광 부산경남 교구장을 비롯하여 전국의 스승들이 참석했다.

효강 종령예하는 토론회 인사 말에서 "불교의식이 진언을 위주로 하고 있고, 이 진언은 모두 밀교 의례법에서 나온 것이다. 밀교종단인 우리는 좀 더 진언에 대한 문헌연구와 철저한 검

증을 거쳐 의식법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유족에 대한 애도를 정성스럽게 표현하는 것이 곧 영식이 천도되고, 가정의 안정화를 가져온다고 말했다. 이어 발표자로 나선 밀교연구소 겸경정사는 "장례식장에서 천도불공은 장중한 의식이 필요하며, 동발 등 다양한 법구를 사용하는 것도 방법이다."라고 제안하면서 "각 사용의식에 맞는 진언보장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 의식에서 독송이 단조롭고 법구사용이 한 가지에 그친 점 등 그동안 경험했던 사례를 들면서 발표했다.

이날 참석한 화음사 수현정사는 장례식이 화장식으로 바뀌어 여러 가지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변화에 따른 대응과

다른 법구사용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스승들은 장례의식에 대하여 방침과 기준의 마련, 독송 방법의 개선, 내용의 보강, 서원당에서 집전 의식의 변화 등을 말했다. 토론회는 서원당, 장례식장, 입관, 발인, 장지, 49재 등에서 천도불공 방법에 대해서 다양하게 의논하였다.

이날 배포된 개정(안) 책자의 주된 내용을 보면

△ 현재 사용하고 있는 불사법요의 고유성과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필요한 계승, 대체로운 법문과 발원문을 가미.

△ 밀교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내용의 진언 다라니 추가.

△ 장중함을 높이기 위하여 법구사용, 엄불식 독송법,

△ 범패형식의 독송법을 통한 엄숙함의 표현.

△ 전통자료집에 근거하여 의식에 맞는 진언.

△ 평상시 영식천도불공의 훈향정공시 → 분향진언, 공양계, 보공양진언. (3개진언 낭독)

△ 이산해연 선사 발원문 독송 후 파지목진언과 관세음보살 멸업장진언. (2개진언 낭독)

△ 참회서원 → 참회서원, 참회진언 낭독.

△ 회향서원 → 회향서원, 보회향진언 낭독.

한편, 다음 토론회는 이날 발표된 내용을 바탕으로 각 교구 회의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한 후, 내년 1월 중순경에 개최하기로 했다.

〈박종환 기자〉

괴산 기도 도량 건립 예정대로 추진중



지성 통리원장이 11월 23일 정각사에서 열린 제3차 정책토론회에 앞서 종의회 및 재단 이사회에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괴산 기도 도량 건립의 건'에 대하여 진행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이 건은 지난 10월에 있었던 재단이사회에서 심의되어 승인된 바 있다.

내 업장 소멸하려면 작은일 부터 실천을

총지사, 밀인사고도 자연보호 나서



▲ 교도들이 산책로의 버려진 휴지와 비닐, 쓰레기를 주워 봉투에 담았다.

주변이 정화되지 않고서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수 없다"면서 환경정화를 강조했다. 이날 교도들은 분리된 봉투에 쓰레기와 재활용, 산업용폐기물을 각각 담았으며 특히 산 오솔길에 버려진 담배꽂이를 주우면서 산불조심을 우려했다.

높지 않은 산이었지만, 일부러 갖다버린 쓰레기

와 썩지 않은 비닐 등 방치된 쓰레기가 많았다. 총지사 이인성 각자는 "요즘도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안타깝다면서 우리 충지종 교도들이 생활 속의 불교를 실천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나와 활동을 해야 된다"고 말했다. 한편 노원구청 시설관리팀에서 자연보호 활동을 위하여 장갑, 집게, 비닐, 마대등을 공급하여 주었다.

불교 충지종교도들이 자연보호를 위해 주변을 깨끗이 하는 쓰레기 줍는 활동에 나섰다.

11월 21일 자성일 불공을 마친 후 총지사(주교 선도원전수)와 밀인사(주교 원당정사) 스승들과 교도들이 서울시 노원구 월계동에 위치한 영축산에 모여 오물을 치우고 쓰레기를 주웠다. 이날 활동은 선도원 전수, 원당 정사, 묘심해 전수, 법수연 전수, 화령 정사, 복경 정사를

비롯하여 2개사원교도 40여명이 참여하여 2시간 가까이 계속 되었다.

불교와 환경적 의미에 대하여 원당정사는 "내 업장을 소멸하려면 아주 작고 사소한 일부터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환경보호는 나와 내 주변부터 깨끗이 해야 되고 버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선도원 전수는 "마음의 병이 있으면 번뇌가 일어나듯이

전국 사원 사무감사 실시중

통리원은 11월 23일부터 12월 16일 까지 전국 사원에 대하여 사무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감사는 지난 76회 추계강공회에서 발표한 사항이며, 감사위원회는 인선 총무부장과 시정 재정부장이 각 사원을 방문하여 일반 공문서 관리, 교도 관리, 재정 관리

등을 감사 하고 있다. 또한 사원관리 및 교회방법에 대하여 지도하고, 사원 및 교도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하여 사원의 주교와 의논된다. 11월에는 충청전라 교구와 부산경남 교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12월에는 서울경인교구와 부산 정각사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종조법설

이타(利他)가 위대(偉大)한 자리(自利)

대중(大衆)을 이(利)롭게 하면 그 사례(謝禮)로서 자기도 이로우며 완전한 장원(長圓)한 이익이고 화평(和平)과 은애(恩愛)로 살고 금세와 내생에 복락(福樂) 무궁(無窮)하다. 대중(大衆)을 해(害)롭게 하고 자기(自己)만 이익되려 하면 그 보복을 받기 때문에 자기도 이익없고 수원(讐怨)과 투쟁(鬭爭)으로 살고 금세와 내생에 양화(殃禍)가 다하지 않고 지옥(地獄)에 떨어진다.

충기 39년 창교절

종조 원정 대성사께서는 이 땅에 다시 밀교(密敎)를 꽃 피우게 하셨습니다. 해방 이후 한국밀교 중흥의 견인차 역할을 하시고, 의궤(儀軌)와 수법(修法)을 정립한 정통밀교종인 충지종을 창종하셨습니다.

충기 39년 창교절을 맞는 우리는 대성사의 가르침을 이어 받아 종단 중흥을 위한 대역사에 매진할 것을 다짐합니다.

- 일 시 : 충기 39년 12월 24일(금) 오전 10시
- 장 소 : 전국 각 사원 서원당

불교충지종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2동 776-2 ☎ 02)552-1080~3 전승 02)552-1082 //www.chongji.or.kr

▲ 원정 기념관



제1회 종보 통신원 워크숍 개최

“사원 소식을 알리고 종보로 교화하자”



▲ 전국의 각 통신원들이 중앙교육원장 화령 정사에게 종단의 방향성에 대한 강의를 듣고 있다.

작성법에 대하여 강의했다. 탁교사는 글 쓰는 요령과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있는 우리말을 바로 잡아 주는 설명도 곁들였다.

박정희(총지사 교도) 편집위원의 사회로 열린 ‘신문내용의 활성화방안과 통신원 제도발전방안’의 주제로 공동토의를 가졌다. 의견은 공감하는 기사를 올려 교도들이 읽으면 보람이 있고, 가족과 이웃에 종보를 알려 교화에도 연결하자 등 다양한 내용을 발표 했다. 토의 분위기는 의미 있는 대화와 웃음으로 생생한 현장을 만들었다.

정기모임은 거리가 있어 교구별 모임을 가지고 의견을 나눌 것과 전체 모임은 1년에 2번 만나기로 잠정 약속을 했다. 한편, 산행은 팔공산 깎아위예 오르면서 화목을 나누었다.

- 관련기사 3면 -
(박종한 기자)

전국 각 사원의 종보 통신원이 11월 26일 27일 양일에 걸쳐 대구 팔공산 유스호스텔에 모여 워크숍을 가졌다. 이날 모인 18명의 통신원, 편집위원 3명, 동해중학교 탁상달 국어교사와 학부형2명, 교육원장 화령정사, 운전사 도현정사, 자인행전수, 총지사 록경정사, 개

천사 우인정사, 단음사 지현전수, 법장원 보정, 교무2명 등 총 33명이 참석하여 종보 통신원활동에 대한 뜻 깊은 자리를 했다. 화령 교육원장은 종단의 방향성 주제 강의에서 “종단에 기여하고 새로운 바람을 일으켜, 유익한 종보를 통해 교도들이 신생활에 하는데 도

움을 주자.”고 말했다. 앞서 인선 총무부장은 인사말을 통해 “교도들이 목적을 가지고 모인 것이 근간 처음이며, 앞으로 종단을 위하고 종보의 활성화와 발전하는데 힘써 주기”를 당부했다. 동해중학교 탁상달 교사는 ‘효리적인 쓰기의 실제’라는 주제로 신문

종립 동해중학교 이사회 개최

탁상달 교사, 교감 연수 대상자에 선출



▲ 이사들이 안건을 논의하고 있다. (131회 이사회모임)

11월 25일 종립 동해중학교 법
원실에서 제132회 이사회가 개회
됐다.
이사회는 교감 선정의 건에서

교감 심의 대상자인 탁상달 교사가 교감 연수 대상자로 선출되었다. 또한 개방이사에는 정영문씨와 김무남씨가 선임되었고, 박정선씨가 추천감사로 선임되었다.

학교 학습권 침해방지 대책 회의결과로 일조권 침해대책 수립 및 조감과의 협의안을 마련하기로 결과를 보고했다.

이날 이사장 의장정사, 인선정사, 대원정사(이상 이사), 하용규 이사, 정관호 이사, 강경중 이사가 참석했다.

총지문화 탐방회 고려불화 관람

불화를 통하여 부처님에게 다가서

교도들이 고려불화를 보며 오랜만의 문화 산책을 즐겼다.

총지 문화 탐방회는 11월 13일 국립중앙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전시하고 있는 ‘700년만의 해후’ 고려불화대전을 보았다. 이날 전

시된 고려불화들은 일본, 미국 등 여러나라에 소장된 그림들을 모아 한시적으로 관람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 관람의 뜻을 깊게 했다.

화려한 색채의 조화와 단아한 모습으로 그려진 불화들은 아미타불도, 화염경 사경, 수월관음

도, 시왕도 등 부처님의 세상을 불화로 볼 수 있어 신심을 돈독히 하였다.

11월 14일 관서사 교도, 11월 20일 밀양사 교도가 각각 고려불화를 감상했다.

한편, 총지 문화 탐방회는 내년 2월 창덕궁 관람과 봄에 성북동 성곽길을 다녀올 예정이다. 총지종과 관련 있는 교도이거나 친지이면 누구나 신청 할 수 있다.

신(信), 해(解), 행(行), 증(證)

교화연구회에서 논의

총리원은 12월 교화연구회를 신, 해, 행, 증에 대하여 논의하고 각 교구에 전달했다.

지난 추계강공회에서 나온 지시사항으로 각 교구회의에서는 토론을 가질 예정이다.

믿음, 이해, 실천, 깨달음에 대

하여 의논된 사항이 각 주제별로 정리되면, 향후 설법시간에 교도들에게 소개된다. 또한 교화활동의 자료로 이용되고 앞으로 회의를 통해 심화된 내용으로 발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12월 20일 총지종홍보물 보자

불교TV(BTN)에서 방영



▲ BTN카메라기자가 선도원(총지사 주교)전수의 설법 시간에 교도들을 촬영하고 있다.

총지종의 홍보물이 불교TV(BTN) 방송을 통해 12월 20일 방영 된다. BTN은 지난 10월 부터 제4회 국제 재가 지도자 대회로 시작하여 촬영을 해왔다. 올림픽 파크텔에서 열린 개회식 장면과 각국 지도자들의 인사모습이 보여진다. 한국전통 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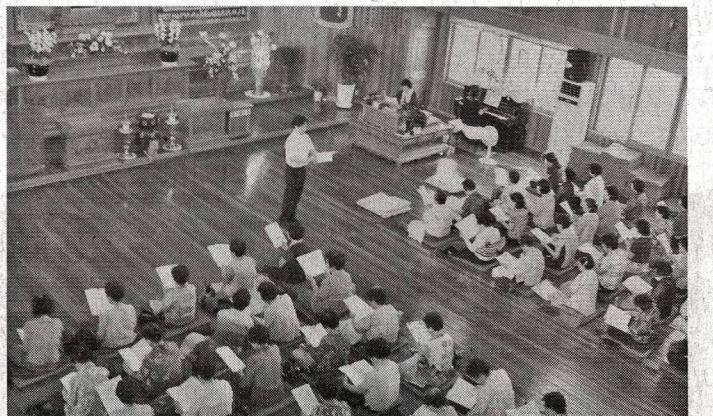
화원에서 가진 열린 세미나 경과, 일부 외국인들이 자국의 불교현황을 소개하는 내용도 있다. 또한 붓을 들고 신중하게 불화 그리는 모습 등을 카메라에 담았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우리 문화를 체험하는 연일밤 한식공양, 부여백제 궁궐 탐방 모습

도 볼 수 있다. 특히 비가 오는 곳은 날씨에도 수덕사 순례와 마곡사에서 촛불을 켜고 탐돌이를 하는 장면도 있다. 계속된 촬영은 본원에서 이루어 졌다.

사원 전경과 서원당 불공모습, 교도들의 불교인연과 신행에 대하여 인터뷰도 보여 진다. 불교TV 한효진 PD는 “총지종이 밀교종단으로 촬영축점을 생활불교, 실천불교에 맞추어 다뤄졌으니 형식으로 보여질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홍보물은 정적인 불공하는 모습뿐만 아니라 행사의 활동적인 면도 보이고, 단조로움을 피하기 위하여 다채롭고 기획적인 장면을 연출했다고 담당PD는 추가 설명했다. 인터넷에서도 방영이 가능하다.

www.btn.co.kr에 들어가 프로그램 찾기에서 불교총지종을 치면 볼 수 있다. 향후 홍보방영이 총지종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부산 정각사 교도들의 찬불가 연습



▲ 정각사 교도들이 서로에게 음성공양을 하고 있다.

부산 정각사(주교 대원정사) 교도들이 찬불가 배우기에 여념이 없다. 교도들은 월초불공 목요일 공식시간 후에 만다라합창단 박운규지휘자의 지도와 반주(김윤미 선생)에 맞추어 노래를 배운다.

- 알림방**
- ▶ 12월 중 각 교구별 교화 회의
 - ▶ 12월 24일 정교절 법회
 - ▶ 12월 24일 허물(참회)불공 회향

부처님 자비 광명, 어려운 이웃과 나눴어요

2010년 10월 26일부터 11월 25일까지

개천사	배운택	11/18	10,000
개천사	이희권	10/28	10,000
개천사	전경택	11/22	20,000
관성사	황성녀	10/28	10,000
관음사	신막심	11/19	10,000
기로원	대 관	11/22	10,000
기로원	대자행	11/22	10,000
기로원	밀공정	11/22	10,000
기로원	범수원	11/22	10,000
기로원	법장화	11/22	10,000
기로원	법지원	11/22	10,000
기로원	불멸심	11/22	10,000
기로원	사홍화	11/22	10,000
기로원	상지화	11/22	10,000
기로원	수증원	11/22	10,000
기로원	총지화	11/22	10,000
단음사	경문지	10/28	10,000
단음사	경문지	11/25	10,000

단음사	경병순	10/28	10,000
단음사	경병순	11/25	10,000
단음사	범연지	11/19	5,000
단음사	천 공	11/5	4,000
덕화사	하순옥	11/18	5,000
덕화사	하순옥	11/18	5,000
만보사	정덕순	10/26	10,000
밀인사	묘심해	11/8	10,000
밀인사	무명씨	11/5	10,000
밀인사	원 당	11/8	10,000
밀인사	이연수	11/24	10,000
밀인사	이재갑	11/8	20,000
밀인사	이재호	10/29	20,000
밀인사	정정희	11/1	5,000
백월사	박삼순	10/27	10,000
백월사	이갑진	11/25	10,000
백월사	진 평	11/15	5,000
법천사	김정숙	10/26	5,000

법천사	지 정	11/22	10,000
법천사	원만원	11/22	10,000
법행사	장길자	11/12	20,000
벽룡사	양정현	11/24	10,000
벽룡사	양지현	11/24	10,000
선립사	심지장	11/18	10,000
선립사	정복지	11/18	10,000
성화사	무명씨	11/15	50,000
수인사	김봉기	10/27	10,000
수인사	장영택	11/1	50,000
시법사	환수원	11/16	10,000
실보사	이순옥	11/4	5,000
실보사	이순옥	11/15	5,000
실보사	조순애	11/11	50,000
실지사	김경자	10/27	5,000
실지사	박병성	10/26	1,000,000
실지사	박병성	11/4	500,000

실지사	송우섭	11/22	5,000
실지사	이화수	11/16	10,000
실지사	정우석	11/16	10,000
연흥중학건설(주)			
연필성	11/12	100,000	
운천사	박보경	10/26	10,000
운천사	백보영	11/25	20,000
정각사	김문수	11/11	20,000
정각사	박동휘	11/19	10,000
정각사	이정선	10/29	5,000
정각사	이정선	11/16	5,000
지인사	허성동	10/28	20,000
지인사	허성동	11/19	20,000
총지사	록 경	11/16	10,000
총지사	박계숙	10/28	20,000
총지사	선도원	11/16	10,000
총지사	이인성	10/28	30,000
총지사	최해선	11/22	20,000

해정사	박순희	10/27	50,000
화음사	강순란	11/3	5,000
화음사	권정희	10/26	10,000
김정순	10/29	500,000	
류승태	10/27	10,000	
무명씨	11/12	20,000	
박말조	11/22	5,000	
신 바	11/17	100,000	
안효정	10/27	20,000	
이혜원	11/1	5,000	
임동수	10/26	30,000	
임동수	11/15	30,000	
최순전	10/29	20,000	

후원회 가입안내

불교 총지종 사회복지재단 후원회는 부처님의 참사랑을 주위의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분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의 정성은 재단 복지사업에 소중히 쓰여집니다.

후원금 납부방법

1. 단체일 경우 회장님이나 담당자를 통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2. 후원금 납부는 지로 또는 아래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를 하시면 됩니다.
 3. 회원번호란에 소속사원명, 통신란에 주소를 기재해 주시면 지로송하는 후원자명 앞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 지로번호 : 7668610
- 우리은행 : 122-177171-13-104
- 예금주 불교총지종 사회복지재단

불교총지종 사회복지 재단
전화 02)552-1083, 02)3452-7485

◇ 위 금액은 전액 불우교도 가정 돕기에 사용됩니다.

기획특집

신(信) · 해(解) · 행(行) · 증(證)



화병 (철학박사 / 중앙교육원장)

불교는 다른 종교처럼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니라 뚜렷한 실천체계가 갖추어져 있다. 물론 다른 종교도 나름대로의 신행체계를 가지고 있었지만 불교처럼 다양하고 합리적인 체계를 가진 종교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불교는 그 출발에서부터 다른 종교와는 다른 차원에서 시작되었는데 그 까닭은 교조이신 석가모니 부처님 자신이 깨치신 진리의 보편타당성에서 비롯된 것이다.

참된 진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그릇됨이 없어야 한다. 옛날에는 맞았는데 지금은 맞지 않는다고나 동양 사람들에게는 맞는 것이지만 서양 사람들에게는 적용할 수 없는 것이라면 그것은 진리가 아닌 것이다. 그런 면에서 보면 아시아권 위주의 불교가 기독교 일색이었던 서양 사회에 새롭게 각광받으며 세계적인 종교로 거듭나고 있는 것이 조금도 이상할 게 없다.

부처님께서는 법을 전하실 때에 항상 합리적이고 체계적이며 알아듣기 쉽게 말씀을 하셨다. 그러한 전통은 부파불교와 대승불교시대에 이르기까지 계속 이어졌다. 그래서 불교의 교리는 삼법인, 사성제, 팔정도, 육바라밀 등과 같이 항상 가짓수를 나누어 일목요연한 체계 하에 설명된다. 이것을 법수(法數)라고 한다. 이 법수 가운데에 사만성불(四滿成佛)이라는 것이 있다.

사만성불은 불교의 대표적인 신행체계로서 흔히 신(信)·해(解)·행(行)·증(證)이라고 한다. 이것은 《점찰선악업보경(占察善惡業報經)》에서 처음으로 설명한 것인데 우리가 성불

을 하는 데 있어서는 신·해·행·증의 네 가지가 원만해야 한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진리에 대한 믿음과 진리에 대한 바른 이해, 그리고 바른 이해를 통한 실천이 제대로 되어야만 바른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다.

신(信)

미신과 맹신을 떠난 믿음

신·해·행·증의 사만성불에서 첫 번째인 신(信)은 믿는 것을 말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양한 종교를 믿으며 살고 있다. 종교를 가지지 않는 사람이라도 나름대로의 신조를 믿으며 살고 있다.

어떤 사람은 심지어 징크스나 부적 같은 것을 믿기도 한다. 이러한 다양한 믿음 가운데에서 어떤 것을 과연 옳은 믿음, 바른 믿음이라고 할 것인가?

무조건 믿는 것을 맹신이라고 하고 잘못 믿는 것을 미신이라고 한다. 수많은 사람들이 미신, 맹신에 빠져 자신을 망치는 것은 물론 주변의 사람들에게까지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많이 본다.

이러한 미신과 맹신 때문에 인류는 많은 불행을 겪었고 지금도 미신과 맹신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불행을 겪고 있으며 심지어는 온 인류의 미래를 어둡게 하기도 한다. 종교에 기인한 인종차별, 테러, 대량학살, 집단자살, 전통문화파괴 등이 대표적인 맹신의 예이다.

그러면 이러한 맹신이나 미신과 달리 불교에서의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화엄경》에서는 “믿음은 도의 으뜸이 되고 공덕의 어머니가 된다.”고 하였다. 불도를 닦아 정각을 이루는 데에는 믿음이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이다.

불교에서의 믿음은 삼보를 믿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우리에게 훌륭한 가르침을 전해 주신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 그리고 불법을 지키고 전하는 상가예의 귀의가 믿음의 시작이다. 그래서 누구나 불자가 되려면 먼저 삼귀의계를 받고 삼보에 대한 귀

의를 맹세한다.

귀의라는 것은 신명을 바쳐 믿고 따르겠다는 의미이다. 모든 불교의식에서 삼귀의에 대한 계송을 가장 앞에 놓는 것도 믿음이 도의 시작이고 원천이며 으뜸이 되기 때문이다. 삼보에 대한 믿음은 한 마디로 불교의 진리에 대한 믿음이다. 그 가운데에서 연기와 공에 대한 믿음은 불자로서는 필수적이다. 이는 인과의 도리를 믿는 것으로서 이것을 부정하고 우연이나 어떤 절대자의 힘을 기대하는 것은 모두 잘못된 믿음이라고 단정할 수 있다.

해(解)

정견에 바탕을 둔 이해

사만성불의 두 번째는 해(解)이다. 해는 바른 이해라고 풀이할 수 있다. 우리가 진리라고 믿는 것도 바른 이해가 있어야 한다. 바른 이해가 없이

진리에 대한 믿음과 함께 진리에 대한 바른 이해가 따르지 않으면 그것을 실천하는 데에도 오류가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진리를 바르게 이해하려는 노력이 따라야 한다. 바른 이해가 없이 무조건 믿는 것은 또 하나의 오류를 범하게 되기 때문이다.

부처님께서는 자기의 견해에 집착하거나 무조건 믿는 것을 잡념, 코끼리 만지기에 비유하시면서 이렇게도 말씀하셨다. “진리를 수호해야 할 사람이 ‘이것만이 진리이고 그 이외의 것은 거짓이다’고 결론을 내리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하시면서 아무리 진리라고 하더라도 그것에 집착하면 또 하나의 미신이 된다고 말씀하셨다.

이처럼 부처님의 가르침은 ‘무조건 믿으라’가 아니라 스스로 이해하고 검증한 다음 진리라고 확인하는 것만 믿되 거기에 집착해서 안된다는 것이

이라는 여덟 가지가 바로 이것인데 바른 견해를 가지고 바르게 생각하고 바른 말을 하며 바른 행위를 하고 바른 직업을 가지며 바른 정진을 하고 바른 도리를 잊지 않으며 마음을 높고요하게 가집으로써 괴로움을 멸하는 것을 말한다. 이 팔정도는 출가와 재가를 막론하고 불자라면 반드시 걸어야 할 길이다.

팔정도가 각 개인의 내면의 충실에 기여하는 것이라면 육바라밀은 나와 관계하는 사람들의 배려, 즉 이타행, 애 좀 더 치중한 실천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상구보리, 하화중생(上求菩提, 下化衆生)의 대승불교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마련된 실천방법이 육바라밀이다.

바라밀(波羅蜜)은 산스크리트어 파라미타(paramita)의 음역으로서 ‘최고의 상태’ 혹은 ‘완성’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것에 의지하면 괴로움이 많은 미혹의 이 언덕에서 모든 괴로움을

벗어 버리는 깨달음의 저 언덕에 도달한다는 의미도 있다.

그래서 이 언덕에서 저 언덕으로 간다는 의미로 파라미타를 한문으로는 ‘도피안(度彼岸)’이라고 의역하기도 한다. 이 언덕이니 저 언덕이니 하는 것은 물론 상징적인 표현이다. 따라서 바라밀이라는 말은 저 언덕으로 건너간다는 의미도 되고 저 언덕으로 건너가기 위한 수단도 된다. 이러한 바라밀에 6 가지가 있다는 것이다.

육바라밀은 보시(布施)바라밀, 지계(持戒)바라밀, 인욕(忍辱)바라밀, 정진(精進)바라밀, 선정(禪定)바라밀, 그리고 지혜(智慧)바라밀을 말한다. 이 6가지 바라밀을 육행(六行)이라고도 한다.

팔정도가 내면의 수행을 중시하는 것에 반해 육행에서는 대상을 염두에 두고 실천하는 보시나 인욕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보시에 대한 강조는 인간 본연의 이기심을 제거하고 이타행으로서 더불어 행복해야 한다는 사상이 저변에 있다. 그야말로 대승불교의 실천행이라고 할 수 있다.

행(行)

팔정도와 육바라밀의 실천

사만성불의 세 번째는 행(行)이다. 행은 믿고 이해한 것을 실천하는 것이다. 이론적으로는 아무리 많이 알고 있더라도 실천이 없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다. 부두막의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는 말처럼 실천이 따라야 깨달음의 길로 들어설 수가 있다. 불교에서의 행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은 팔정도와 육바라밀이라고 할 수 있다.

팔정도는 사성제 가운데의 도성제로서 성불에 이르기 위하여 반드시 실천해야 할 여덟 가지 방법을 말한다. 정견(正見)·정사(正思)·정어(正語)·정업(正業)·정명(正命)·정정(正精進)·정념(正念)·정정(正定)

증(證)

진리의 체득

사만성불의 마지막은 증만성불이다. 증(證)이라는 것은 진리를 증득한다, 체득한다는 의미이다. 경전에서는 ‘무분별정법지(無分別寂靜法智)’와 부사의승묘공덕(不思議勝妙功德)을 얻는 것’을 말한다고 했다.

한 마디로 최고의 지혜를 얻어 모든 괴로움을 벗어나는 열반의 경지가 바로 이것이다. 부처님의 진리의 가르침을 믿고 잘 이해하며 거기에 따라 실천하면 이러한 경지가 얻어지는 것이다.

이처럼 불자로서 어떻게 열반이라는 궁극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를 체계적으로 내보인 것이 바로 신·해·행·증의 사만성불이다. 성불이니 열반이니 하면 많은 사람들은 나와는 별개의 아득한 경지로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설계한 것이다. 우리가 믿는 만큼, 아는 만큼 실천하면 거기에 맞는 행복이 주어진다. 예를 들어,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 술을 끊는 것이 여러 모로 좋다는 생각을 믿고 왜 술이 해독을 주는가를 바르게 이해한 다음 금주를 한다면 그 사람은 심신이 그만큼 편안해 질 수 있다. 혹은 도박에 중독된 사람이 도박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좋다는 것에 확신을 가지고 도박이 어떤 해로움을 끼치는가를 바르게 이해한다면 그것을 끊게 될 것이다.

그런 다음 도박의 폐단으로부터 벗어났을 때 그 사람은 비로소 편안함을 느끼게 될 것이다. 이처럼 신·해·행·증의 단계를 거창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사소한 것에서부터 실천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신·해·행·증이다.

바른 행위에 대한 공덕을 믿고 바른 행위의 내용과 결과에 대한 철저한 이해를 거쳐 거기에 맞게 실천하면 그 공덕은 저절로 얻어지게 된다. 이처럼 신·해·행·증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의 사소한 것의 이해와 실천으로부터 높은 경지의 득도에 이르기까지 두루 적용할 수 있는 실천체계이다.

공동토의에서 나온 정보 통신원의 다양한 의견들

<교도들이 원하는 신문>

<살아있고 유익한 신문>

충지정보

<교도들이 만드는 신문>

<교화하는 신문>

내용

- 1) 교도 가족과 주변의 이야기를 쓰자.
 - 신행 체험한 이야기, 증득한 이야기, 행사내용 등을 시, 수필, 문서 등 형식에 구애 없이 쓰면 된다. 교도가 하는 사업장과 관련된 이야기를 써도 된다.
 - 가족, 지식을 이야기(신행, 학교생활, 사회생활, 동호회)도 된다.(배워진 표 참조)
 - 주제는 많다. 결혼, 승진, 부름 등 우리 교도들의 이야기면 된다.
 - 내가 쓰기 어렵다면 자식들에게 대신 써달라 하자.
- 2) 주교스승님과 대화를 많이 하자
 - 주교스승님이 사원의 활동사항을 잘 알고 있으므로, 스승님과 대화를 많이 하고 글이 올라가는 것은 알려 주어야 한다.

- 3) 동해중학교 글도 올리자.
 - 동해중학교는 우리종단의 종합학교이다. 관심을 가져주어야 한다. 학생, 선생님, 학부형, 동문 등 글도 올리고 충지종과 연관되는 단체나 개인에 대해서도 소속감이 들도록 글을 실어야 한다.
- 4) 기로스승님, 나이드신 교도님 내용도 쓰자.
 - 기로스승님은 경향이 풍부하여 우리들이 들어 도움 되는 내용이 너무 많다. 기로스승에게 듣는 옛날 추억담도 나이드신 교도들에게 추억이 되고, 젊은 교도들에게는 가르침이 될 것이다. (편집부에서 인터뷰시 필요한 질문 내용을 정리하여 나누어 주겠음.)

역할과 활동

- 1) 통신원의 역할을 높이자.
 - 통신원이 자기사원의 교도들에게 정보를 읽어보고 권유하자.
 - 정보의 내용이 잘 되어 있는가를 모니터링 하여 편집부에 알려주자.
 - 정보를 발전시키는 방안을 나눈다면 재미있고 유익한 신문이 될 것이다.
- 2) 통신원 활동 모임을 자주 갖자.
 - 통신원법우리는 동질감을 갖고 의견을 내려면 자주 만나야 된다. 교구별로 정기적인 모임과 교구별 통신원 장을 구성하는 것이 요구된다.
- 3) 인터넷 카페 적극 활용
 - 모임의 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 인터넷을 활용하자. 그러면 교구별의 이야기를 신속하게 알 수 있고 전달할 수 있다.
 - 이메일을 주고 받거나, 서로의 휴대폰 전화번호를 알아 문자로 연락하자.

홍보

- 1) 정보 발송을 넓히자.
 - 정보가 지식, 형제, 친구들에게 발송 되도록 주소를 알려주자. 부모가 다니는 사원에 대하여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추후 사원에 나

- 와도 거부감이 없을 것 이다. 주변 사람부터 교화하는 첫 걸음이다.
- 2) 정보의 변화를 주자.
 - 교도들이 사원에서 정보를 더러 안 가져 간다. 교도들이 읽을 거리가 있다면 가져 갈 것이다. 그렇기 위해서 정보의 다양성, 변화성을 주자. 교도들이 가져가는 신문을 만들자.
- 3) 스승님이 자성일에 정보를 소개하고 읽어주자.
 - 스승님이 교도들에게 정보를 한번 읽어준다면 교도들은 자연히 관심을 가지고 읽어 볼 것이다. 그리고 교도들로부터 다양한 의견과 원하는 목소리가 나올 것이다. 의견을 들어 일반적인 사항은 반영토록 하자.

사명감

- 1) 정보 통신원은 사명감이 필요하다.
 - 신행생활을 하면서 가정과 아이들을 보살피는 시간이 넘쳐나지 않는 것은 사실이다. 틈틈이 시간을 내어 통신원 활동과 모임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 마음을 내어야 한다.
- 2) 종단의 위상을 높이자
 - 충지정보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



▲ 전국 각 사원에서 모인 통신원들이 신문내용 활성화에 대하여 자유롭게 공동토의를 하고 있다.

- 이 읽을 수 있게 하여 충지종의 인지도를 높이고 교화하는 장으로 삼자.
- 3) 월보에서 주보로 바꾸어 나가자.
 - 우리 통신원이 종단을 위하고 정보를 유익하게 만든다면, 사람들이 정보를 찾을 것이다. 발행부수가 늘어난다면 이것이 곧 교화이며 종단이 발전되는 것이다.

교육과 구성력

- 1) 앞으로 신문 관련 사항에 대하여 강의를 받고 싶다.
- 오늘 탁선생님의 글 작성요령 강의가 좋았다. 내가 주변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틀린 줄 몰랐다. 향후 신문 관련된 강의를 지속적으로

- 받고 싶다.
- 2) 통신원이라는 명칭을 새로 짓자.
 - 향후 명칭을 생각한 후 다음모임에서 결정하자.
- 3) 통신원에 대한 조직 구성력이 필요하다.
 - 통신원에 대한 교육은 정기적으로 가져야 되며, 위촉장과 정식명칭, 발대식을 다음 워크샵때 갖기로 하자. 교구모임은 교구통신원들이 일정을 정하자.
 - 다음 워크샵에서는 통신원으로 한 일과 애로사항에 대한 발표회도 갖자.
 - 이번 참석하지 못한 통신원에게도 내용을 전달하자.



총기화 스승님 달라이라마 친견기<3>

마음은 이름에 지나지 않는다

총기화 기로스승님이 지난 9월 15일~ 17일까지 인도 다람살라 남갈사원에서 열린 달라이라마의 한국인 불자들을 위한 특별법회에 참석했습니다. 약 3,500여명의 내외국인 불자들이 동참한 법회에서 달라이라마는 처음 참석한 대다수의 불자들을 위해 대중의 보리심을 발하는 용수보살의 저술(보리심석)을 설했습니다. 법문 요지를 게재합니다.

이제 의식의 자성인 진여를 말하겠습니다. 유식에서 '삼계는 오직 마음뿐'이며, <능가경>에서 '외경은 마음의 현현일 뿐' 이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월칭보살은 다르게 해석합니다. 부처님께서 '마음이 주된 것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설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부처님께서 필요에 의해서 말씀하신 것이지 중관 입장에서는 궁극의 견해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오직 마음이라고 부처님께서 보인 것은 여러식은 이들의 두려움을 끊기 위해서 이치 진여는 아닙니다. <십지경>에는 유식의 견해와 관련한 말씀이 있지만은 글자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유식에서 말하는 삼성설은 변계소집성, 의타기성, 원성실성으로 차단해야 할 것입니다. 변계 소집성이며 변계소집의 바탕이 의타기성입니다. 실체가 있다고 여기는 변계소집성으로 이를 끊은 것이 원성실성입니다.

중관의 자립논증과 귀류논증에서는 삼성설의 해석이 각기 다르게 나타납니다. 이 삼성은 모두 무자성이라고 말합니다. 유식에서는 의타기성과 변계소집성은 성립되지 않고 원성실성만이 성립됩니다. 무자성에 대한 가르침에 대해서 단견에 빠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3중 법륜을 굴리니 <해심밀경>이 그 중 하나이지만 중관에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서로 모순되는 여러 가지의 가르침들은 중생이 지닌 관행과 근거에 따라 가리킨 것이며 이로써 성문, 연각, 모살성 등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는 중생 각각이 지닌 의식 수준의 차이에 따라서 다양한 것



▲ 총기화 스승과 한국의 비구니 스님들이 달라이라마와 기념사진을 찍었다.

입니다. 또 다른 경에서는 궁극적으로 보살승으로서 오직 일승뿐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 모두 대가 설법인 까닭입니다.

<해심밀경>에서 이야기 하는 요의 불요의를 구분

삼계는 오직 마음뿐이며 외경은 마음의 현현일 뿐

하는 방법과 대응경(십지경)의 분류 방법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취사하는 구별을 위해서라도 다른 경과의 비교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는 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이치로서만 분류가 가능합니다.

대중의 견해에서는 불요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따지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응법은 무아입니다. 이는 제법이 모두 무아이며 마음은 무사이래 난적이 없습니다. <무상요가탄트라>에 의하

면 외부의 대상이 실체가 없고 무자성의 법성임을 이야기 하지만 마음을 제어하는 것뿐만 아니라 의 마음의 법성을 수행하는 것이 주된 중심입니다. 의 부의 대상이 무자성인 바와 같이 인간의 마음은 객체와 주체 모두가 하나가 됩니다.

유가행자는 자신의 마음을 다스려서 경계에 이른 청정한 마음이 자증분의 대상이라고 합니다. 마음의 특별한 실체가 있다는 것은 혼승 종자의 발현이라고 봅니다. 이는 창조주를 인정하는 의도의 수련학파의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마음의 정계가 현상에 불과하기에 마지막에는 아뢰야식만이 남게 됨으로 부처님과 가까이 된다는 것이 유식의 견해입니다.

중관에서는 성전보살의 <400송>에 나온 이치와 같이 지나간 것은 존재하지 않고 미래의 것은 얻음이 없다고 봅니다. 현재의 의식이라는 것이 어디에 있는가? 현재 나를 존재하는 근거가 되는 실체가 바로 제8아뢰야식이라고 유식에서 주장하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현재 의식인가는 명확히 해야 할 것입니다.

<보리심석>의 32번째 계승의 경우에는 정확히 해석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승장엄경론>에 의하면 어떤 조건과 만났을 때 인식과 그에대한 작용이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뢰야식은 진실이 아니면서 진실인 듯 하게 하여 문화의 동력이 됩니다.

의식에 의해서 의식 대상을 알 수 있으므로 인식 대상 없는 의식은 없습니다. 중관의 입장에서 마음이 진실로 성립되고 자성이 있다면 자체에서 의지하지 않고 성립해야 합니다. 인식하는 대상과 주체는 상호 의존적으로 성립되는 것입니다. 의지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불변의 자성은 없습니다. 그렇기에 마음은 이름에 지나지 않으니 이름과 달리 존재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결국은 언어 또한 관념일 뿐이지 변하지 않는 자성은 없습니다.



▲ 총기화 스승이 한국 스님들과 함께 달라이라마 법문을 듣고 있다.

총기동의보감

조기폐경



조선휘 원장

<여성美 한의원>

흔히 갱년기 하면 40~50대 중년 여성들에게 찾아오는 신체의 노화 과정으로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요즘에는 비뚤어진 여성미의 기준에 맞추어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행해지는 무분별한 다이어트와 그에 따른 극심한 스트레스는 20~30대 젊은 갱년기 장애라 일컫는 "조기폐경"

히 해주고 음양의 밸런스에 맞추어 오장육부의 기능을 향상시킴으로써 정상적인 배란성 생리가 배출되게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개개인의 증상과 체질에 맞는 내복약과 함께 한의학에서는 자하거(紫河車)라 하여 인태반요법을 병행해 약해진 자궁난소의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생리의 정상회복을 돕게 된다.

참고로 자하거는 생리통, 생리불순, 무월경, 갱년기, 조기폐경 등 자궁질환에 주로 활용 되고있는 약재로 그효능을 동의보감에서는 "기운과 영양이 부족하여 몸이 아픈 것과 허약하고 과로로 몸이 상한 것과 기미가 돋고 피부가 검게 되는 것을 치료하고 혈액을 조절하는 약과 함께 사용할 경우 건강한 생리를 회복해 아기를 잘 낳게 된다."고 기록하고 있다.

치료는 경락의 막힌 기운을 풀어 기혈순환을 원활히 해야

의 심각한 원인이 된다.

원래 갱년기 장애는 난소의 기능 쇠퇴로 인해서 여성의 몸이 정신적, 육체적, 생리적으로 변화되는 시기를 말한다. 이때부터 임신에 대한 걱정, 반복적인 생리의 번거로움에서 벗어나 제2의 인생을 활기차게 살수있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하지만 임신과 출산의 경험도 해보지 못한 20~30대에 불현듯 찾아온 조기폐경은 당사자에게 여성기능의 상실로 인한 허탈감과 더불어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안겨준다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한방에서는 조기폐경의 근원인을 평소 신장의 기운이 허한데 간과 심,비장의 기운이 함께 막히면 경혈을 생성, 운하지 못해서 생기는 증상으로 본다. 현대의 발전되고 문명화된 생활과 비추어 볼 때 가임기 여성들의 1%정도가 겪고 있다는 조기폐경의 정확한 원인은 알려져 있지 않지만 무리한 다이어트와 스트레스, 환경호르몬, 전자파 등이 주요 원인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 이외에도 갑상선 질환, 염색체 이상, 자가면역 질환과 관련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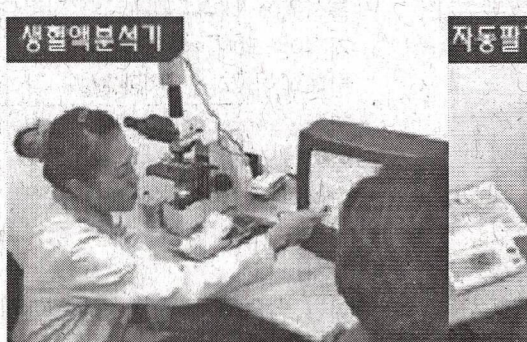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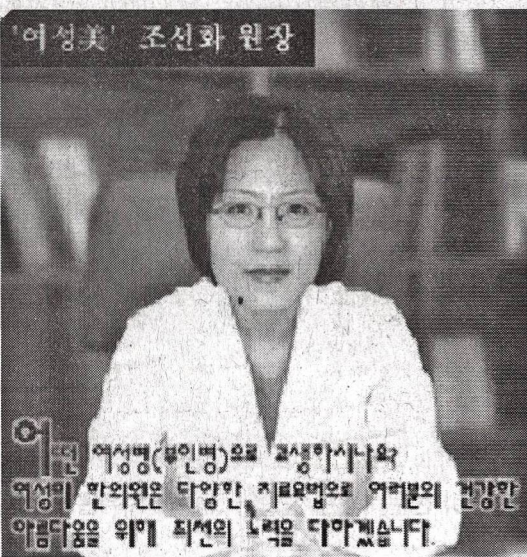
한의학적인 치료의 근본은 자궁 내 어혈을 풀고 자궁 및 생식기관 관련 간, 신장, 충임맥 등 경락의 막힌 기운을 풀어서 기혈순환을 원활

주요 증상

1. 주로 얼굴이 화끈거리거나 가슴 두근거림
2. 불면증
3. 신경과민
4. 평소 건강했을 때의 생리주기보다 2~3개월 이상 기간이 길어지고 생리가 없어진다. (일반적으로 무월경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조기폐경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조기폐경의 치료와 개선에 도움이 되는 생활요법

1. 기름지고 음식, 유제품을, 카페인이 함유된 제품을 삼간다.
2. 콩, 두부, 된장, 신선한 채소, 과일을 매일 섭취한다.
3. 심폐기능을 강화하고 상체의 열을 내릴 수 있는 속보, 조깅, 수영 등 유산소운동을 꾸준히 병행한다.
4. 규칙적인 생활습관(식사, 수면, 배설)의 유지는 인체의 면역성을 높이고 호르몬의 균형을 맞추어 생리회복을 돕게 된다.



여성美 한의원

■ 여성병(부인과) 클리닉

- 월경병: 월경불순, 생리통, 무월경, 월경곤란증, 갱년기 장애, 과소-과다월경 등...
- 생식기병: 자궁근종, 질염, 냉증, 대하증, 봉루증, 자궁선근증, 요실금...
- 임신병: 불임, 임신오제(임덧), 임신중독증 등...
- 산후병: 산후풍, 산후비만, 유산후유증 등...

* 기능성자궁 요법(자경단, 요실단 등)으로 탁월한 치료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 비만 클리닉

- 여성: 자궁 다이어트
- 남성: 복부 다이어트

■ 가족 클리닉 -보양, 수험생 등

* 한지들의 요청으로 2003년 부터 남편 및 자녀들을 위한 클리닉을 개설하였습니다. *

■ 진료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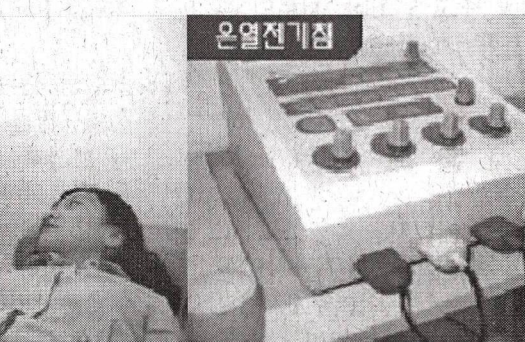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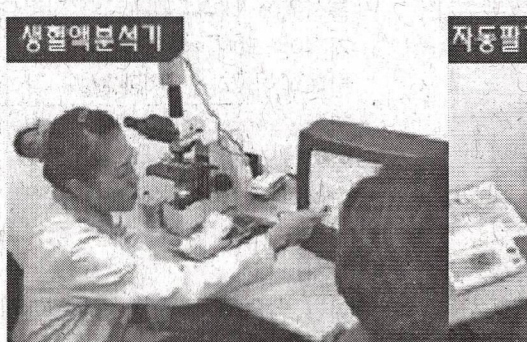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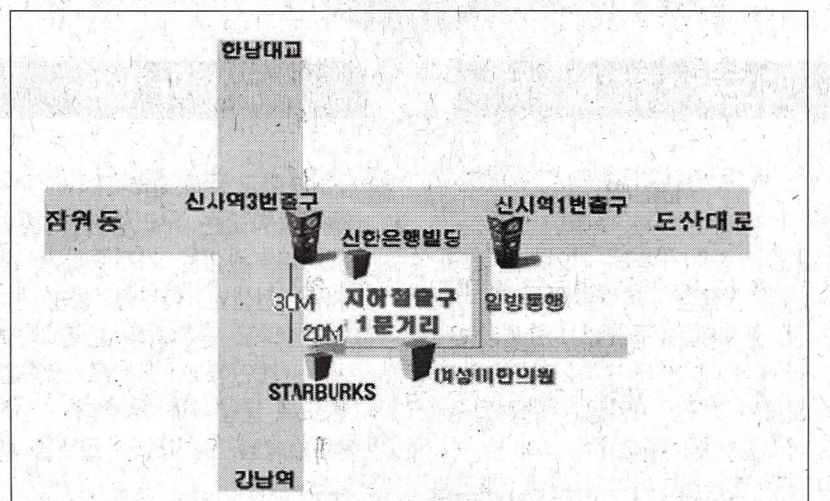
평 일 : 오전 9시30분~오후 6시30분
주 말 : 오전 9시30분~오후 4시
점심시간 : 오후 1시~오후 2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육아TV "전문의 상담"



최고의 진료 및 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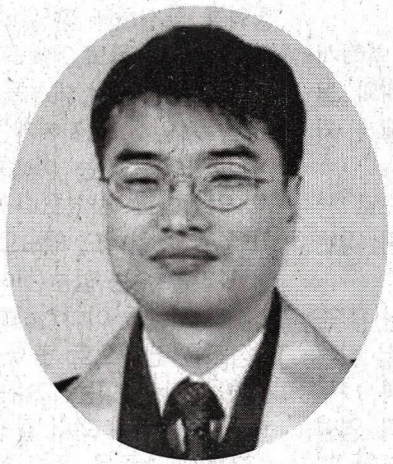
온라인 상담 www.women119.co.kr

전화상담 02)545-0072

Fax 02)545-2191

지상설법

선지식은 불법을 행(行)하고 중생을 위하여 저절로 온다



인선 관성사 주교

선지식(善知識)

가) 선지식(善知識)은 법과 같이 설(說)하고 설한 비와 같이 행하는 사람을 말함이니, 자기가 먼저 믿고 살생을 하지 아니하고, 계행(戒行)을 지키며 회사를 행하고 널리 법을 들으며, 정견(正見)을 행하고, 지혜를 닦아 행하며, 남에게 행하게 함이니 이것이 선지식이다.

나) 선지식은 착한 법(法)을 가진이러, 스스로 낙을 구하지 않고 항상 중생을 위하여 낙을 구하며 남의 허물을 흠잡지 아니하고 항상 착한 것만 말하니 이러므로 선지식이니라.

(종조법설집 139쪽)

성도합시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교도님들 몸은 괜찮으십니까. 몸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선지식에 대하여 말씀하고자 합니다.

선지식의 뜻은 개략적으로 불법의 도리와 이치를 깨달아 지혜와 덕망이 있고 교화할 능력이 있으며 남에게 가르침을 주거나 모범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종조님께서는 선지식에 대하여 이르기까지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을 항상 따르고 그 내용대로 행하는 사람을 칭했습니다.

첫번째 글귀에서 백장선사의 일화가 생각납니다. '일일부작 일일불식(一日不作 一日不食)'

뜻은 "하루 일을 하지 않으면 하루 식사를 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백장선사는 매일같이 90세가 넘어서도 젊은 수행자들 못지않게 수행과 열심히 일을 하여 모든 스님들에게 귀감이 되었습니다. 하루는 젊은 수자들이 선사께서 일할 때 쓰는 농기구를 몰래 감추었더니 백장선사가 식사를 하지 않자 수자들이 그 연유를 묻자 대답한 말이라고 합니다. 선지식이 있고 없음을 떠나 부처님법을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법을 하루 잊지 않거나, 불공을 하지 않는다면 하루 식사를 안 한다는 나와와 맹세가 있어야 합니다.

즉, 내가 다짐하고 말한 것은 반드시 지키고 실천하겠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다음 글을 보겠습니다. "계행을 지키며 회사를 행하며 널리 법을 들으며, 정견을 행하고 지혜를 닦아," 구절을 보면 부처님이 법을 얻기 위해 몸까지 희생한 전생담을 교도님들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부처님이 전

생에 수루바왕으로 있을 때 불법을 얻기 위하여 처자와 자신을 아차에게 몸을 보시했으며, 또한 다른 전생에는 부처님이 자신의 몸을 태워 회생하면서까지 법문을 듣고 기뻐한 사실을 아실 것입니다. 서원당에 단 하루를 다녀도 설법을 듣거나, 불공기도를 드릴 때 부처님처럼 법을 얻겠다는 간절한 마음과 용맹정진으로 기도 해야 합니다. 그러면 마음이 달라지고 행동이 변하게 되고 생활이 바뀌게 됩니다.

그 이유는 법을 바르게 듣고 행(行)하면

다고 불만을 표시하고 서운함을 내보이면 진정 불자는 아닙니다. 그럴수록 긍정적인 생각과 기도를 해야 됩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지요. 평상시에는 조용하고 다정한 사람이 이웃과 다름이 있을 때 불법에서 배운 자비심과 배려심은 어디가고, 욕심이 난무한다면 계행을 제대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웃사람이 절에 다닌다는 것을 다 알고 있다면 불자로서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우리들은 어떠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불자로서 부끄럽지 않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계행은 지키고 지혜를 닦아 남에게 모범을 보여야

사물에 대한 인식과 의식이 바뀝니다. 이것이 곧 정견(正見)입니다. 바로 보면 지혜가 생깁니다. 이렇게 정진하고 지혜의 눈이 생기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이와 같이 달라지기를 원한다면 계행이 먼저 수반되어야 하며, 지켜야 됩니다. 계를 지키고 예를 갖추면 인격은 자연히 올라가며,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할 때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이성적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불자들은 평상시에는 이성적 행동을 하는데 자신과 이해관계가 있다면 감정적으로 행동 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요.

아파트 분양을 받으려고 절에 가서 기도드리고, 보시를 했는데 그만 당첨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번 아파트와는 인연이 없었구나, 부처님께서 다음기회에 좋은 분양 받으라는 것인가 보다 생각하면 되는데, 당첨되지 않았

그렇게 할 때 절에 열심히 기도하러 다니더니 역시 다르구나 하고 이웃도 인정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위의 예처럼 미당첨의 서운함과 이웃과의 다름에서 이기려 하는 것은 왜 나타날까요. 그것은 애착과 집착, 삼독(三毒)심이 있어 그렇습니다.

우리는 서원당에서 천도불공 재를 올립니다. 재를 지낼 때는 조상 영상의 왕생성불을 바라는 것이기도 하지만, 내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탐심, 진심, 치심을 천도시킨다는 마음부터 가져야 합니다. 이러한 욕심내는 마음, 성내는 마음, 어리석은 마음을 모두 천도시켰을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구절을 보겠습니다. "스스로 낙을 구하지 않고 항상 중생을 위하여 낙을 구하며, 남의 허물을 흠잡지 아니하고 착한 말

을 하라"는 보통 사람들은 남의 허물은 잘 보이고 내 허물은 안 보입니다. 그래서 남 헐뜯는 말을 합니다. 마치 나는 단점이 없고 남의 단점만 늘어 놓습니다. 내 허물을 대하여 부족함을 느끼고 반성해야 합니다. 내가 더 닦아야 하겠구나, 스스로 뒤우치고 참회해야 됩니다. 자기 욕심과 명예욕을 앞 세우지 말고 다 버리고 공부해야 됩니다. 남에게 듣기 싫은 소리, 안 좋은 마음을 내는 것을 모두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생을 위하여 마음이 생깁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행복한 말을 전하고 행동한다면 이제 곧 중생에게 다가가는 길입니다. 남을 위한 배려와 착한 말을 한다면 중생이 기뻐합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는 나 또한 기쁩니다. 고만에 빠지지 말고 끊임없이 반복 한다면 나에게 있는 삼독심은 점점 소멸 됩니다.

이와 같이 부처님법을 듣고 참되게 행동하고, 지혜를 갖고 중생을 위하여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다면 나도 모르게 선지식을 갖춘 사람이 됩니다. 선지식은 지식을 많이 쌓는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스스로가 공부하고 실행하면서 계행을 지키고 지혜롭게 생활 실천하며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된다면, 내가 선지식이라고 생각지 않고 다른 사람으로 부터 얻는 것이 선지식입니다.

우리 모두 불법의 수행, 염승 불공을 쌓아 남에게 이롭고 지혜를 주어 다른 사람들에게 행복감을 줄 수 있는 선지식이 되도록 합시다.

성도 하십시오.

(위 법문은 11월 14일 관성사 인선 주교가 설법시간에 한 내용을 요약 하였습니다.)

◇세가지 사람 다스리는 법

부처님이 왕사성 가란타죽원에 계실 때였다. 마침 말을 길들이는 취락주가 와서 "부처님께 공손히 문안하고 한쪽에 물러나서 앉아 있었다. 그때 부처님께서 취락주에게 말씀하셨다.

"말을 길들이는데 몇가지 법이 있느냐?"

"구답이시여, 세가지 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부드럽고 연한 법이요, 둘째는 굳세고 강한 법이요, 셋째는 부드럽고 연하며 굳세고 강한 법입니다."

"만약 세가지 법으로서 하더라도 말이 길들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럴 때는 죽여 버립니다."

취락주는 또 부처님께 여쭙었다.

"부처님께서 몇가지 법으로서 사람을 다스리십니까?"

"나도 세가지 법으로 사람을 다스린다. 첫째는 부드럽고 연한 법이요, 둘째는 굳세고 강한 법이요, 셋째는 부드럽고 연하며 굳세고 강한 법이다."

"구답이시여, 만약 세가지로서 사람을 다스려도 오히려 조복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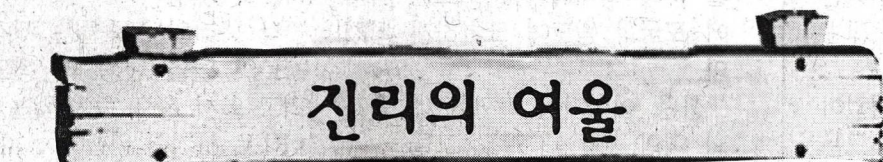
"취락주야, 세가지로서 조복하여도 오히려 조복되지 아니하면, 마땅히 죽이는 것이니, 왜냐하면, 내 법이 굴욕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구답의법에는 살생은 부정한 것이니, 죽이지 못하는 것이운데, 조복되지 않는 자를 어찌 죽인다고 하십니까?"

"그대가 말하는 것과 같이, 여래의 법에는 살생이 부정한 것이니, 살생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세가지 법으로 사람을 다스려도 그가 조복되지 아니하면, 상대하여 말하지 아니하고 가르치고 훈계하지 아니하는 것이니, 취락주야, 만약 여래 조어장부로서, 상대하여 말하지 아니하고, 가르치고 훈계하지 아니하면, 어찌 죽이는 것이 아니겠느냐?"

취락주가 부처님께 여쭙었다.

"구답이시여, 만약 조어장부로서 상



진리의 여울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고, 가르치고 훈계하지 아니하면, 참으로 죽이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런 까닭에 제가 오늘부터 모든 악업을 버리고, 불에 귀명하고 법에 귀명하고 승에 귀명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취락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곧 진실한 요체니라."하셨다.

(잡아함경)

◇모든 괴로움은 번뇌가 근본이다.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선남자야, 출가한 보살이 밤낮으로 세상을 관찰 때, 일체가 다 번뇌 생기는 것 뿐이라. 모든 집착에서 번뇌가 일어나고, 번뇌로 말미암아 나와 내것

이라는 것이 근본이 되어, 팔만사천 모든 진로문이 다시 다투어 일어나서, 세상에 가득 차고 있다. 무엇때문인가 하면, 재가한 범부는 오욕에 깊게 탐착하여, 처자 권속들과 노비 복사를 갖추어 이 인연으로써 나고 늙고 병들고 죽고 근심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미운이와 만나고 사랑 하는 이와 이별하고 빈궁함과 쇠퇴함과 탐하고 구하는 등 못 고통이, 그림자가 형체를 따르고 메아리가 소리에 응하는 것처럼, 세세로 서로 이어 항상 끊어지지 아니하는 것이니 이렇게 모든 고통은 크고 작은 번뇌가 근본이 되는 것이다.

◇선악의 업보는 영원히 따른다.

불과 칼과 원뿔 등으로 비록 해친다 하더라도 오직 참을 수 있으나, 만약 스스로 악업을 지어서 후일에 고통을 받는 것은 이보다도 더하다.

친척이나 권속은 모두 분리하지마는 오직 업만은 서로 버리지 못하며 선악은 미래세까지 영원히 따른다. 꽃이 가는 곳에 따라 향내도 따르듯이 만약 선악의 업을 지으면 따르고 쫓는 것이 또한 이와 같다.

모든 새들이 숲에 의지하여 아침에 깃다가 저녁에 도로 모이듯, 중생도 이러하여 선악의 인연따라 후일에 도로 모인다.

(정법염처경권 제6지옥품)

◇출가한 자의 모든 장애

출가하여 배우는 자에게 두 가지 큰 장애가 있으니, 하나는 소견에

업매이는 것이요, 또 하나는 재물을 탐하고 명예에 업매이는 것이다.

집을 나가 배우는 자에게는 두 가지 법의 장애가 있으니, 한가지는 세속의 옷을 입고 싶어 하는 것이요, 또 한가지는 스승과 친우를 미워하고 질투하는 것이다.

집을 나가 배우는 자는 우박비가 있으니, 하나는 바른 법을 비방하는 것이요, 또 하나는 계행을 범하고 신성한 것을 먹는 것이다.

집을 나가 배우는 자는 두 가지 중창이 있으니, 하나는 남의 단점을 보는 것이요, 다른 하나는 자기의 단점을 스스로 덮는 것이다.

집을 나가 배우는 자는 두 가지 병이 있으니, 하나는 교만하여 그 마음을 과하지 아니하는 것이요, 다른 하나는 마하연을 배우는 자를 훼방하는 것이다.

(마하연보염경)

총지문화센터 수강생 모집

총지문화센터 수강생을 모집 합니다. 현재 밸리댄스 기초반과 초의차 명상, 멀티테라피 등 다양한 수업을 진행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밸리댄스 - 매주 화, 목 (오전 10시/ 오후 7시) / 월 5만원(3개월 10만원)
- 초의차 명상 -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 3시 30분) /월 2만원 (10주 5만원/ 교재비 5천원 별도)
- 멀티테라피 협회 통합심리 상담사 3급 - 매주 월요일 (10시 30분 ~ 12시까지) /6주 25만원.
- (아동) 아이멀티 통합미술 - 매주 월, 수, 금(2시~3시) /월 6만원(재료비 5천원 별도/3개월 수강시 재료비 면제)/유치부, 초등부
- (아동) 집중력 높여주는 색채교실 - 매주 월, 수, 금(2시~3시) /월 6만원 (재료비 5천원 별도 /3개월 수강시 재료비 면제)/유치부, 초등부
- 직장인을 위한 휴(休)아트 아틀리에 - 매주 월, 금(7시 30분 ~ 8시 30분) /월 10만원(재료비 1만원 별도/3개월 수강시 재료비 면제)
- 테라피 아틀리에(테라피 페인팅 동호회) - 매주 수요일 (7시 30분 ~ 8시 30분) /월 10만원(재료비 1만원 별도/3개월 수강시 재료비 면제)
- 화를 다스리는 동양화 - 매주 금요일 (10시 30분 ~ 11시 30분)/월 12만원
- 내 손으로 만드는 테라피 DIY- 매주 금요일 (12시 ~ 1시 30분) /월 10만원(재료비 2만원/3개월 수강시 재료비 면제)

시간표

	월	화	수	목	금
am10:00		기초 밸리댄스		기초 밸리댄스	
10:30			마음을 다스리는 아틀리에		"화"를 다스리는 동양화
11:00		멀티테라피 협회 통합심리상담사 3급 (6주 과정 후, 수료증 발급) 강사: 선민아			강사: 김재선
11:30					내손으로 만든 테라피 DIY *치유그림을 이용한 생활소품 만들기 강사: 전현하
pm12:00					
12:30					
1:00					
1:30					
2:00		아이멀티 통합미술	기초 차명상 이론 및 실습		아이멀티 통합미술
3:00					
3:30		집중력을 높여주는 색채교실			집중력을 높여주는 색채교실
4:30					
7:00					
7:30		직장인을 위한 휴(休)아트 아틀리에		기초 밸리댄스	직장인을 위한 휴(休)아트 아틀리에
8:30			테라피 아틀리에 (테라피페인팅동호회)		

교육문의 02) 3452-7485

세상사는 이야기

늦 가을날 나뭇잎과 대화

요즘은 난 기침에 많이 시달리고 있다.

기침 할 때마다 마치 내 몸의 수분이 다 빠져 나가는 느낌이다. 웬일인지 약을 먹어도 소용이 없다. 내 몸도 나무를 닮아 가는 것 같다. 가을이면 나무들이 잎을 떨어뜨리는 고통을 참아 내듯이 기침으로 내 몸의 일부분을 떨어 내려는 듯 계속 된다. 고통스럽지만 이것도 내가 참아 내야만 할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끝날 때를 기다리고 있다.

내가 좋아하는 하천 변의 나무들도 잎을 모두 떨어뜨리고 매마른 모습으로 서 있다. 더러는 아직도 단풍이 든 예쁜 잎을 한아름 안고 있는 나무들도 있다.

가을은 풍성한 수확의 계절이기도 하지만 이미 수확을 다 끝낸 가을의 끝자락은 쓸쓸하고 외롭다. 매마른 나무에 스치는 건조한 바람도 쓸쓸하고 마른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지만 누렇게 말라 버린 풀들도 쓸쓸하다.

스산한 바람에 떨고 있는 나무와 풀들은 다가 오는 겨울이 얼마나 쓸쓸하고 외로울까? 그들은 긴 겨울 동안 추위와 무서움을 오로지 혼자 힘으로 맞서 이겨 내야 한다. 그들은 매년 겨울을 그렇게 버텼었다. 불

영하로 내려가는데 꽃을 어떻게 지켜주려는지 걱정이 된다. 왜 가을의 제일 끝자락에 힘겹게 여린 꽃을 피워냈을까? 조금 있으면 대지가 푹푹 얼어붙는 겨울이 올 텐데.

여린 풀들은 추위에 온 몸과 잎을 한데 모으고 웅크리고 있다. 사람들도 추우면 몸의 면적을 최대한 줄이려고 잔뜩 웅크리는 것과 다르지 않다. 사람들이 보기에 식물들은 아무 생각이 없는 것 같지만 그들이 자기 몸을 지키기 위해 하는 행동은 인간과 비교했을 때 조금도 뒤지지 않는다.

따사로운 햇살이 대지를 따뜻하게 비추주는 한낮이 되면 웅크리고 있던 식물들은 저마다 기지개를 켜기 시작한다. 태양을 향해 온 팔을 힘차게 벌려 따뜻한 햇살과 싱그러운 기운을 받아 행복한 얼굴을 하고 있다. 마치 포근한 엄마 품에 안겨 있을 때 배불리 먹고 만족한 표정으로 엄마 눈을 바라보고 있는 아기와 같다. 행복한 얼굴을 하고 있는 식물들을 보고 있는 내 얼굴에도 저절로 미소가 퍼진다. 이 순간 행복이라는 예쁜 소녀가 살며시 찾아와 내 품에 안긴다. 난 역시 행복한 사람이다.

행복이란 단어는 보기만 해도 마음을 설

희망을 간직하면서 새 봄에 만나요

만을 터트리지도 않고 투덜거리지도 않는다. 묵묵히 겨울을 이겨내는 그들의 힘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참으로 경이로운 일이다.

벌써 부지런히 잎을 다 떨어뜨린 나무들은 앙상한 알몸을 들어내고 다가 오는 겨울 맛을 준비를 하고 있다. 아직도 곱게 물든 잎을 가득 안고 있는 나무들은 자신의 보신인 나뭇잎을 멀리 보내지 않으려고 꼭 붙잡고 있다. 이미 떠나려고 준비하고 있는 나뭇잎을 나무엄마는 힘겹게 안고 있다.

여부족이다. 바람 한번 부니 나뭇잎들은 한꺼번에 우수수 떨어진다. 무엇이 그렇게 좋아서 팔랑팔랑 춤까지 추며 내려 오는지? 안타까워하는 엄마 나무를 벌레 다 잊어버리고 친구들과 함께 활짝 웃으며 다같이 어디론가 가고 있다. 재잘재잘거리며 달리기 시합이라도 하는 듯 멀리 굴러간다.

아침에 길을 걸으며 난 나무와 풀들을 하나하나 보며 이야기를 해 본다. "밤 사이 잘 지냈느냐?"

춤지는 않았느냐?" 마치 풀들이 말을 하는 것 같다. "지난 밤엔 조금 추웠지만 참을 만 했답니다."

어떤 것은 지금 뒤늦게 꽃을 피우고 있다. 자운영과 클로버는 날씨가 점점 추워

레게 하고 바로 행복한 감정 속으로 빠져들게 된다.

마치 행복이라는 마술 속 세계로 빨려 들어 가듯이 우리들은 모두 행복해진다. 마술이 풀리면 어떻게 하나 걱정할 필요는 없다. 계속 마술에 걸리면 되니까.

오늘 아침 기온이 영하 5도까지 내려갔다고 한다. 그나마 살아남기 위해 버티던 꽃과 풀들이 힘을 잃고 죽어 버렸다. 내 몸과 마음까지도 푹푹 얼어 버린다.

계절은 참 잔인한 것 같다. 어김없이 찾아와 겨울의 힘을 과시하고 있다. 모든 풀들을 하룻밤 사이에 얼려 버렸다.

그래도 희망은 있다. 겨울 동안 그들은 내년 봄 다시 예쁜 새싹을 틔울 꿈을 꾸며 모든 준비를 시작하고 있을 것이다. 그들은 결코 겨울 동안 잠만 자고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지금 겨울을 보낼 준비를 한창 하고 있다. 집집마다 겨울을 나는데 필요한 감자를 하느라고 바쁘다. 우리집도 물론 감자를 마쳤다. 마음이 부자가 된 것 같다.

나도 겨울 준비를 마쳤으니 아마 내 몸과 마음의 찌꺼기들도 기침과 함께 다 떨어져 나왔을 것이다. 드디어 나를 괴롭히던 기침도 곧 멈출 것이다.

-박묘정-

불교설화 <50>

산에서 돌아온 왕자는 그 모습을 보더니 놀라서,

『그대는 어디 기분이러도 나쁜가.』

『몸이 머리가 아파서.』
『이거 큰일 났군. 이 산속에는 약이 없는데.』

『제가 성에 있을 때 머리가 아파서 의사에게 진찰을 받은 결과 석백(石柏)을 머리에 바르면 곧 나 있습니다.』

『그 석백은 어디에 있는가.』

『저 산 아래에 석벽이 있는 것을 언젠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가, 그럼 빨리 파오겠다.』
『당신 혼자서는 언덕을 내려갈 수 없으므로 저도 함께 가서 제가 줄을 위에서 아래로 내려줄 터이니 당신은 그것을 잡고 내려 가십시오.』

『두통이 났는데 걸어가도 좋으면 그렇게 해주시오.』

원래 정직하고 조금도 사념이 없는 왕자는 아내를 데리고 그 절벽이 있는 곳으로 석벽(石柏)을 파러 갔다.

다리에 줄을 매고 아내에게 그 줄을 끌게 하고 절벽을 차례로 내려 갔다.

절벽의 중턱까지 갔다고 생각되었을 때에 그녀는 끌어 당기고 있던 줄을 갑자기 놓았다.

그래서 왕자는 절벽에서 바로 물속에 떨어졌다.

다른 사람 같으면 목숨을 잃었을지도 모르는 곳인데 과보(果報)를 갖춘 왕자는 죽지도 않고 강물을 따라 떠내려가서 모르는 사이에 모국의 왕도에 표류하게 되었다.

한편, 이야기가 바뀌어 네 왕자와 역의(逆意)를 알고 그들을 국외로 추방한 국왕은 그 뒤에 곧 죽게 되었다.

이 때문에 왕위를 이을 왕자가 없고 대신들은 누구를 세워서 왕위를 잇게 할 것인가를 협의한 결과 점사(占師)를 불러서 결정하게 하는 것이 좋다고 결정을 보았다.

재빨리 점사를 불러서 점을 친 결과 그 점사는,

『비록 백집(百劫)을 지나도 지은 바 업(業)은 잊지 않고 인연을 맞이하게 되면 반드시 그 과보(果報)를 스스로 받는다.』

고 하는 말만 부를 뿐 아무도 선정하지 않았다.

이때 표류 해온 소지 왕자는 업(業)이 무르익어서 왕위를 이어야

할 때가 온 것으로 물에서 나와 언덕 위에 쉬고 있는데 그 위덕(威德)을 그러는 때문인지 그 언덕 위에서 이상한 광채가 비쳤다.

이 광채를 빨리 발견한 그 점사는 그 광을 쫓아와 보니 한 사람의 청년이 단정히 앉아 있었다.

그 광상을 보니 왕이 될 길상(吉相)을 갖추고 있으므로 급히 왕궁으로 돌아와서,

『대신, 왕위를 이을 대인(大人)이 나타났습니다. 급히 맞이할 준비를 갖추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고했다.

점사의 급보를 받은 대신들은 서둘러서 성 아래를 장식하고 왕을 맞이해서

즉위식(即位式)을 거행할 것을 국민들에게 알렸다.

그래서 마침내 소지왕자(小枝王子)를 옹립(擁立)해

서 국왕으로 했다.

대신들은 왕비를 구하기 위하여 모든 나라의 귀족들에게 명령해서

지혜와 용모를 겸비한 부인을 구하도록 했다.

각 나라의 귀족들은 제각기 스스로의 딸을 단장하여 왕도에 데리고 와서 왕의 뜻에 맞는 여자를 아내로 하기를 원했다.

그러나 자기 아내 때문에 쓰러진 경험을 얻은 왕은 여성 그 자체에 대하여 전혀 좋지 않은 기분을 가지고 있는 때였으므로 아를

다운 단장을 갖춘 젊은 여성이라고 하더라도 그다지 흥미가 없었다.

『대왕님, 국모(國母)가 없을 때는 왕의 후예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많은 사람 중에서 마음에 드시는 분을 왕비로 맞이하시도록 바라옵시다.』

하고 대신들은 왕에게 권했다.

『그러나, 여자란 요사스런 것이므로 나는 아내를 맞이하려고 생각하지 않는다.』

하고 왕은 왕비를 맞이하는 문

제에 대하여서는 진언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런데 소지 왕자를 절벽에서 떨어뜨린 그의 부정한 아내와 불의의 사나이는 도대체 어떻게 되었을까.

그들은 왕자가 죽은 것으로 생각하고 불의의 환락에 빠진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호사다마(好事多魔)라고나 할는지 왕자의 모습이 그 산에서 없어짐과 동시에 지금까지 꽃과 나무 열매와 뿌리에도 모두 맛과 영양이 갖추어 있던 것이 갑자기 그 기운을 잃고 꽃도 پژ그러니와 나무 열매도 맺지 않을 뿐만 아니라, 비록 나무 열매가 드물게 열렸다고 하더라도 쓰거나 뜯거나 맛이 없어서 먹을 수 없는 것뿐이었다.

불의의 즐거움에 빠진 두 사람도 먹을 것이 나빠짐으로 그들의 신체는 점점 약해져서 생명을 이어갈 수조차 없었다.

부득이 부정한 아내를 불구의 몸인 정부를 등에 업고 마

다.

왕도의 사람들도 또한 그들에게 경의를 표시하게 되었고 그 열녀의 이야기는 왕도 안에 퍼졌다.

그 소문을 들은 대신들은,

『왕은 앞서 여자에게는 요사함이 많아서 자기는 아내를 맞이하지 않겠다고 하였으나 세상에는 이와 같은 열녀도 있으므로 한 마디로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다.』

하고 서로를 이야기하고 있었다.

정조를 간관으로 해서 생활하고 존경을 받고 있는 그녀는 드디어 왕궁의 문 앞에 와서 결식을 했다.

그들의 소문을 들어서 살고 있는 문지기는 이 일을 국왕에게 말

씀드렸다.

『그러한 정숙한 여자가 있으면 들어오게 하라.』

하고 명했다. 안내되어 온 부인을 한 눈으로 본 왕은 미소를 띄우면서,

『나의 고기를 먹고 굶주림을 면하고,

나의 피를 마셔서 갈증을 풀고, 이제 고깃덩이를 등에 업고 다니는 사람,

언제 본적이 있는 것 같은. 석백(石柏)을 따졌다고 거짓말하고

나를 절벽에서 떨어뜨리고 이제 고깃덩이를 업고 다니는 사람

언제 본뎡도 하여라.』

하고 읊었다. 뿐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이 노래를 들은 그녀는 마음을 누우쳐 고개를 떨구었다.

결에 있던 대신들은 왕이 읊은 시(詩)의 뜻을 몰라서,

『대왕께서 지금 읊으신 시의 의미가 무엇을 뜻하는 것이옵니까.』

하고 물었다.

대신들의 질문에 따라 소지왕(小枝王)은 이와 같이 열녀로 가

장한 부인에 대한 과거사를 자세히 이야기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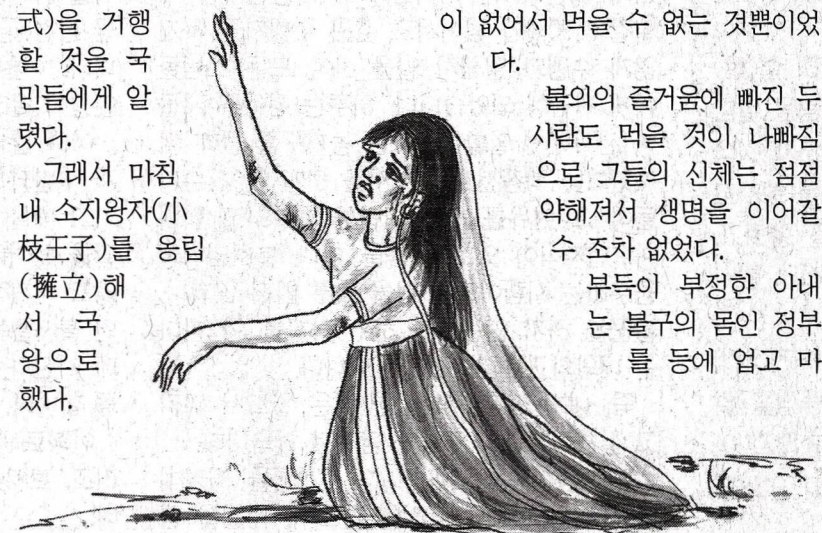
왕의 말씀에 따라 사정을 알게 된 대신들도 또 성 아래 사람들도 그녀의 부정한 행위에 놀람과 동시에 지금까지 그녀를 존경하던 것을 누우치며,

『이 더러운 여자.』

하고 나무라며 그녀와 그 사이를 밖으로 추방하고 말았다.

소지왕은 지금의 석준이요, 부정한 부인은 데다뎡의 전신이다.

-심일화-



정금산인삼

02. 499-9006

이전 확장

여러분의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축

인삼의 고장
금산인삼의 여러 제품

수삼. 홍삼. 장뇌삼. 절편.
환. 홍삼차류. 과자류. 캔디류



사장 길경임 (벽룡사교도)
010-9960-8778

인삼의 효능



〈명의별록(名醫別錄)〉이나 〈본초강목(本草綱目)〉에도 인삼의 효능을 집약 수록. 효능으로 스트레스 해소, 알콜 해독, 당뇨병, 암, 동맥경화증, 고혈압, 간 질환, 빈혈증 등. 이 외에도 혈액 중의 섬유소원 분해제, 중추신경계, 내분비계 및 면역계 치료에 탁월한 효능이 있다.

홍삼의 효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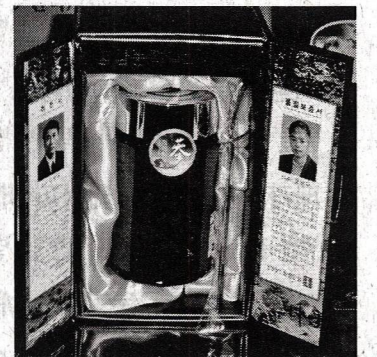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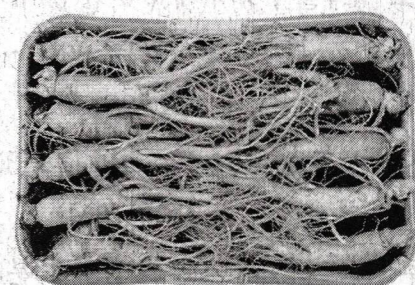
혈당조절, 간보호, 발기부전증개선, 감기, 운동기능 향상, 항염, 항암, 방사선, 피부보호 및 항산화 작용.
홍삼 효과는 적응소 (adaptogen : 어댑토겐) 효과 : 우리 몸의 항상성을 유지하도록 도움을 준다. 바로 주위환경으로부터 오는 각종 누병, 육체적, 화학적, 생물학적 스트레스등에 증가시켜 생체가 보다 쉽게 적응하도록 하는 능력을 말한다.

홍삼기능식품

산삼과 흑삼 엑기스 2400g

즉석판매

국내산 약초 → 현지 직송



서울 중랑구 면목본동 동원시장 뒤편 금강산 사우나 앞에서 우측 30m

날마다 좋은날

수능 시험장 교문 앞에서

자 인 행 (운천사)

지난밤 일찍 잠자리에 들었지만 팔 아이는 쉽게 잠들지 못하는 것 같다. 아마도 내일 보게 될 수능시험 때문 일 것이다. 엄마인 나도 이렇게 긴장 되는데 본인인 팔 아이는 오죽할까?

아직도 어둠이 가시지 않은 새벽, 전밤 일찍 잠들지 못한 팔 아이를 걱정하면서 나는 미리 준비해두었던 도시락 반찬 재료들을 냉장고에서 꺼내놓고 서둘러 조리를 시작했다. 국을 끓이고, 반찬을 만들어 보온병과 반찬통에 담고 그리고 과일도 조금 담았다. 그때 팔 아이 머리맡에 놓아둔 휴대폰에서 몇 번의 알람소리가 울리고 난 후 팔 아이가 화장실로 들어가는 소리가 들린다.

올해 초 인사이드룸으로 이사를 했지만 고3 팔 아이는 전학할 수가 없어 막내 녀석만 전학하여 데리고 가고 팔은 친정집에 맡겼다. 그래서 수험생 엄마들이 겪는 고3엄마는 고생임 마라는 시련(?)을 친정엄마가 맡아줬다. 그래서 친정엄마에게는 늘 고맙고, 팔 아이에게는 늘 미안한 감정을

가지고 있어 수능시험날 오늘 하루 만이라도 엄마 노릇해 보려고 어제 오후 친정에 왔다.

준비한 몇 가지 반찬으로 아침을 차렸지만 팔 아이는 입맛이 없는지 아니면 긴장이 돼서 그러는지 서너 숟가락 들고는 수저를 내려놓는다. 그 래 억지로 먹는 것이 오히려 더 안 좋을 수도 있겠다 싶어 이것저것 챙겨서 집을 나설 준비를 했다.

수험번호표, 신분증, 그리고 기타 필기도구와 작은 무릎 덮개용 담요, 도시락과 보온병 아침부터 몇 번씩 챙겼다. 아파트 주차장 입구에 팔 아이 외삼촌이 차 시동을 켜고 출발 준비를 하고 있었다. 친정엄마도 가 아겠다고 해서 같이 차에 올랐다.

시험장은 큰길에서부터 차량출입이 통제 되어 우리는 걸어 시험장으로 향했다. 수능시험장으로 향하는 작은 길 양옆으로 각 학교 후배들이 나와 언제 준비했는지 시험 응원 문구가 적힌 현수막과 팻말을 들고 자 기학교 선배들을 응원하고 선생님을

도 같이 나와 수험생들에게 필기도 구와 따뜻한 차를 나누어 주면서 수험생들을 격려하고 있었다. 그중 팔 아이 학교 후배인 듯한 학생들이 팔 아이를 발견하고는 이쪽으로 몰려와 팔 아이를 둘러싸고 언니 파이팅을 외친다.

시험장 정문에서 팔 아이가 휴대폰을 나에게 건네고 나는 도시락과 보온 병을 팔에 손에 건넸다. 팔 아이는 걱정 하지 말라는 듯 조그맣게 미소를 보 이는 팔 아이를 꼭 안아주며 최선을 다 하라 말만했다. 교문너머로 멀어지는 팔 아이의 뒷모습을 보는데 울컥 눈물이 나온다. 그동안 엄마로서 모자란 게 너무 많아서 미안하고 그래도 울 바르게 잘 자라줘서 또 고맙고, 뭐라 고 꼭 꼬집어서 이유를 설명할 수는 없지만 북 바치는 감정에 나도 모르 게 눈물이 자꾸 나온다. 교문 앞에서 한참을 서있었다.

12년 동안 공부해온 결과를 단 하루의 시험으로 평가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

다. 오늘 비록 기대했던 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스스로에게 분노나 비탄의 화살을 겨누는 것은 지금 히 어리석은 것이다. 우리의 삶에서 꼭 한번뿐이라는 것은 없다. 기회는 항상 우리에게 주어진다. 지금 모든 것이 다 끝나고 무너진 것처럼 보여 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까지 없 어지는 것은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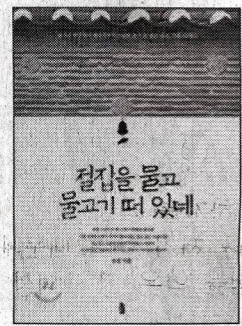
우리들에게 부여된 삶의 길이에 비 하면 오늘 수능시험은 아주 작은 계 기에 지나지 않는다. 수능시험의 결 과가 우리들 개개인의 가치를 결정 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히말라야산맥을 넘고자 꿈꾸는 사 람도 작은 언덕에서 넘어질 수가 있 다. 그러나 넘어졌다고 히말라야를 포기하지는 않는다. 성공이란 실패든 모두가 우리들의 삶에 소중한 밑거름이며 그리고 귀중한 경험이다. 땅에 넘어진 자 땅을 딛고 일어선다 는 평범한 진리를 깨우칠 수 있는 지 헤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부 처남께 간절히 기도 한다.

을 상징하고 그 곳에서 비롯하는 새로 운 사회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절집을 물고 물고기 머위에

원철 저/ 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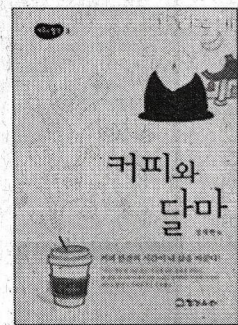
건축은 과학 적 측면과 함께 예술적 측면도 있다. 특히 종교 건축은 사상 적 의미와 예술 적 의미를 풍성 하게 담는다. 사찰도 마찬가지다. 『절집을 물고 물고기 머위에』는 원철 스님이 불교적 관점에서 전통 건축에 대해 이야기한 책이다. 저자는 왕가의 명당에서 폐사지까지 각종 건축을 두루 다루며 불교적 관점에서 건축의 아름다움과 지혜 그리고 우리네 삶을 넘나드는 해안들다룬다.

절집산중 산사에서 도심 빌딩에 이르기까지 저자의 눈에 비친 건축물은 모두 지혜, 깨달음을 담고 있다. 자연 과 하나 되어 문명을 있게 하는 절집, 옛 정원의 모습을 지키는 고택 등 그 의 관심은 도심과 산사를 넘나든다. 이 책을 읽는 동안 독자는 각각의 건

축물에 얹혀 있는 흥미로운 이야기는 물론, 공간적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는 200여 컷의 사진을 통해 건축물 의 새로운 의미를 알게 된다. 저자는 숨겨진 보물을 찾듯 건축 안에 숨겨진 의미들을 훑으며, 건축물과 더불어 그 속에서 만날 수 있는 역사적 인물,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풍 성하게 실었다.

커피와 달마

성재현 저 / 한결을 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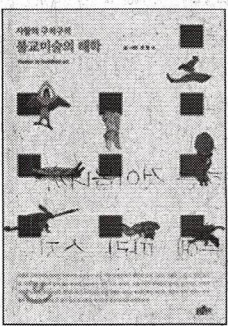


20세기 처양 과 동양이 만나 며 다양한 현상 이 일어났다. 그 중 한 가지 가 불교가 서구 에 퍼진 사건이 다. 미국에서, 프랑스에서, 폴 란드에서 불교는 지적 유행처럼 번지 기 시작했다. 물질문명과 산업화에 피 폐해진 정신을 불교가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줬기 때문이다. 특히 '좌 선'이라는 수행 방식에 서구인들은 매료되었다. 좌선은 몸과 마음을 안정시 켜 삶의 질을 바꾼다.

이달의 추천도서

불교미술의 해학

권중서 저/ 불광출판사신학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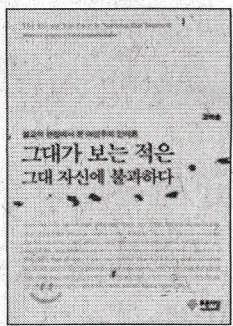
루돌프 오토 는 『성스러움의 의미』라는 책에 서 종교의 속성 을 성스러움이 라고 정의했다. 이는 진·선·미라는 가치를 초월한 무엇을 표현하는 말이다. 따라서 종교는 진리, 도덕, 아름다움을 모두 포괄하면서도 그 이상의 의미를 발현하게 된다. 바 귀 말하면 종교 미술은 성스러움을 담 게 된다는 뜻인데, 『불교미술의 해학』 은 불교미술을 통해서 불교의 참된 뜻 에 다가가기 위한 시도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저자는 260장의 도판을 자신의 발과 손 그리고 눈을 이용해 확보함으 로써 책의 생생함을 더했다.

앞서 언급했듯, 불교건축이나 불교 미술은 단순한 예술이 아닌 종교예술 이라는 점에서 불교가 추구하는 가치를

담게 된다. 이 책은 절과 탕화 등 불교 예술작품에 담긴 불교적 가치를 경전과 함께 제시함으로써 예술을 공부하는 사 람은 물론 불도의 길을 걷는 신자들에게까지 유익한 정보를 제공한다. 아울 러 책 제목에서도 나타나듯, 불교미술 속에 담긴 해학과 풍자를 함께 다룸으 로써 독자의 흥미를 부여한다.

그대가 보는 책은 그대 자신에 불과하다

고미송 저/ 푸른세상



불교적 관점 으로 여성주의 인식론을 새롭게 바라보고 분석한 이론서이 다. 저자는 우 리 안에 있는 이분법 현상에 주목하고, 불교 적 관점으로 여성주의를 새롭게 바라 보고 있다. 그리고 자비와 용서, 믿음 등 불교와 여성주의가 교차하는 지점

부산 경남 교구 만다라 합창단 단원을 모집합니다

총지종 부산 경남 교구 만다라 합창단에서는
아름다운 음성으로 부처님의 법을 전하며
자비를 실천할 단원을 모집합니다.
관심있는 불자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 ◆ 모집대상 : 모든 불자
- ◆ 모집시기 : 수 시
- ◆ 연습일시 : 매주 목요일 오전 11시
- ◆ 연습장소 : 정각사 합창단실
- ◆ 연 락 처 : 김 윤 경 단 장
051)552-7901

우리들 이야기

합 박 눈

은 산하를 하얗게 깨끗하게 뒤덮은 눈

산 위에서는 여유롭고 아름답게 나무위에 걸터앉았지만

길 위에서는 무참히 차에 짓밟히면서 사라져 갔지요,

다들 각자 있을 자리에 있어야 행복 한가 봅니다,

도로는 흰색도 검정색도 아닌

눈도 비도 아닌 상태로 질퍽하니

온통 차들의 경적소리로 난리인데

또 한편으론 고요적하게 나무 가지에 얹힌 채로

생각지도 못한 도심 속의 눈꽃을 선사하기도 하고

또 한편 퇴근길 인도에서는 높은 건물위의 눈이 얼다 지쳐

반쯤 녹은 상태로 한꺼번에 자발적으로 투척되는 바람에

누구라도 다칠까봐 조마조마 한 광경까지..

하늘에서는 한가지로 내린 눈이

이 사바세계에선 순식간에 다른 모습들을 선사하니

마치 순식간에 갖가지 삶을 사는 인간들을

자연이 조롱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감히 들었습니다.

- 권순복 (단음사 통신원) -

생활상식

▶화장실 타일 청소

화장실 등의 타일의 틈새에 때가 끼 었을 경우에는 스프레이 물통에다 락 스 원액을 넣어서 타일 틈새에 끼인 때 부위에 뿌려두면 다음 날에는 깨끗 이 없어진다. 오래 찌든 때일수록 세 척하는데 시간이 걸리지만 하루 정도 지나면 깨끗해진다.

▶접합용 실리콘 부위에 생긴 곰팡이

화장실이나 주방의 실리콘을 도포한 부분에 생긴 곰팡이 얼룩을 제거하려 면 먼저 때를 깨끗이제거한 후, 화장 지에 락스를 듬뿍 묻혀서 얼룩 부위에 얹어두고, 하루 밤 지나면 깨끗이 제 거되어 처음보다 더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다.

▶곰팡이가 핀 천장 청소 방법

부엌에는 물을 많이 쓰기 때문에 습 기가 많은 편이다. 특히 비나 눈이 많 이 오면 찬장같이 햇볕이 잘 들지 않 고 바람이 잘 통하지 않는 곳에는 곰팡이가 피기 쉽다. 곰팡이가 핀 찬장 은 물에 소다를 한 숟갈 정도 풀어 형 겹에 적셔 닦는다. 그 다음, 세제에 식 초 몇 방울을 떨어뜨려 다시 한 번 닦 으면 곰팡이가 깨끗이 없어진다.

▶싱크대의 물때는 아체 줌으로 제거

스테인레스 싱크대를 사용한 다음 물 청소를 게을리하면 물 때가 끼게 된다. 이것을 수세미로 박박닦으면 흠 집이 생긴다. 이런 경우에는 주방용 세제로 닦은 다음 감자 껍질, 파, 마늘 등을 면으로 된주머니에 넣고 짜면서 나오는 아체 줌으로 닦으면 깨끗해 진 다.



육바라밀에 배열된 관법

불교상식②

- 1) '몸'은 보시행(布施行)이라 간 탐하고 인색한 마음을 고쳐 국 가와 사회에 봉사하는 사람이 되며,
- 2) '마'는 정계행(淨戒行)이라 도 의와 법과 질서를 지키는 사람 이 되며,
- 3) '니'는 안인행(安忍行)이라 진 심(眞心) 많은 사람이 하심겸양 하여 남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

- 이 되며
- 4) '반'은 정진행(精進行)이라 태 만하고 방일하던 사람이 근면한 사람이 되며,
- 5) '혜'는 정려행(精慮行)이라 허 망하던 사람이 망상을 버리고 은인자중하게 되며,
- 6) '홀'은 지혜행(智慧行)이라 사 리관단을 할 줄 아는 슬기로운 사람이 된다.



대한불교 조계종 ‘국제선센터’ 개원

한국불교 간화선, 세계화로 출발



▲ 서울 신정동에 개관한 국제선센터 모습.

한국전통문화와 한국불교 간 정신문화의 본고장으로 내세울 화선을 세계인에게 알리고 세계 서울 신정동에 위치한 ‘대한불교 조계종 국제선센터’가 11월 15일 문을 열었다.

이날 국제선센터 2층 법당에서 1000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한 개원식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1990년 종교부지를 확보한 현근스님을 비롯한 역대 조계사 주지 스님들과 조계사 신도들에게 감사 드린다”면서 “한국불교 세계화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며, 2013년 개최하는 세계종교지도자 포럼도 국제선센터 설립 목적과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국제선센터 주지 현조스님은 “국제선센터는 신라 때 지은 경주 황룡사 9층 목탑에서 아이디어를 가져온 건물”이라며 “국제적 교류가 가장 활발했던 신라 불교처럼 전세계인의 종교와 수행문화를 리드하는 국제선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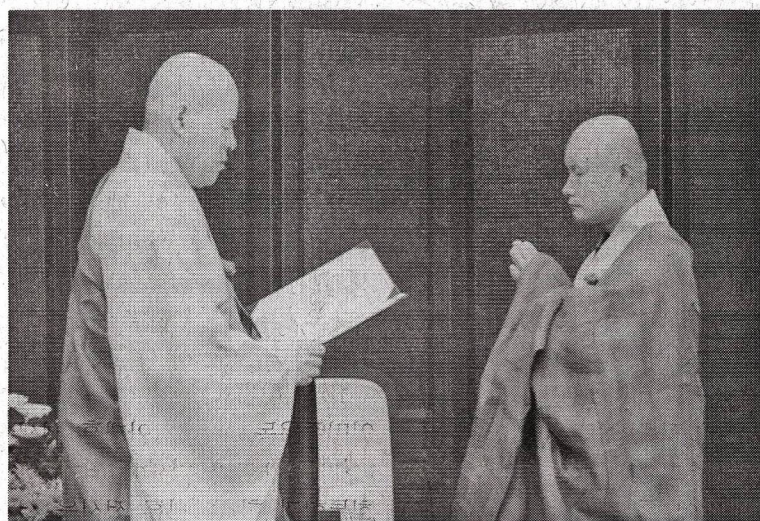
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가꾸어 나가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한국불교 간화선을 내·외국인이 쉽게 체험할 수 있는 국제선센터는 2007년 10월 설계 기본계획을 마련했으며 2008년 10월에 착공식을 가져 4년 만에 완공됐다. 총 사업비 400억(국고 190억 원, 자부담 201억 원·토지)·원으로 건축부지 면적 2110㎡(638평)에 연면적 1만 600㎡(3206평)의 지상 7층, 지하 3층 규모로 선원, 템플스테이관, 큰 법당, 교육문화관, 전통문화체험관, 식당(200명 공양)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들에게 한국의 전통문화와 불교문화를 체험할 수 있게 1층에 외국인 전용 안내센터를 마련해 관련 정보를 알려줄 계획이다. 현재 5층에 마련한 금차선원(템플스테이관)은 세계적인 수행공간으로 자리매김 하기 위해 ‘간화선’ 학술 세미나 △세계 종교지도자 초청강연 △세계 수행센터 프로그램 교류 △수행 포럼 및 시연 등의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숙소는 2~3인용 방 9개, 20인용 대중방 2개, 30인용 대중방 1개를 구비했다.

봉은사 ‘직영사찰’ 지정, 주지에 진화스님 임명

봉은사의 도심포교 역할을 활발히 해줄 것 요구



▲ 진화스님이 자승스님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있다.

직영사찰 전환과 정지권 외압 설을 빚던 서울 봉은사가 직영사찰로 지정되고 재산관리인에 봉은사 부주지 진화스님(사진)이 임명되면서 8개월만에 논란이 일단락됐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지난 9일 총무회의를 통해 봉은사를 직영사찰로 지정함에 이어 10일 봉은사 관리인에 부주지 진화스님을 임명했다.

진화 스님 주지안은 봉은사 직영사찰 전환 결정 이후부터 사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인사는 조계종 총무원이 명진 스님과 봉은사 대중들의 의견을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자승 스님은 이날 임명장 수여식에서 일체의 언급을 삼갔으며, 수여식에 앞서 가진 자리에서 진화 스님에게 “큰 파장이 있었지만, 봉은사의 도심포교 역할을 기대한다”며 “직영사찰로 전환된 만큼 앞으로 직영사찰법을 잘 준수해 운영해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진화 스님은 “그동안 많은 논

란이 있었고 그 해결과정에서도 혼란이 있었지만 총무원과 봉은사 신도들이 잘 인내해 원만히 해결될 수 있었다”면서 “품에 맞지 않는 옷을 입은 것 같아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 총무원과 적극 협조해 나가겠다”고 짧은 소감을 밝혔다.

한편 지난 7일 봉은사 일요일 회에서 기존 입장을 번복하고 종단을 비난했던 봉은사 전 주지 명진스님은 수행에 전념하겠다는 뜻을 밝힌 뒤 9일 종립 특별선원 불암사로 내려갔다.

이에 앞서 봉은사신도회(회장 송진)는 지난 8일과 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앞 우정국공원에서 ‘봉은사 직영사찰 지정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진화스님은 조계총림 송광사 방장 보성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광주 증심사 주지, 역삼정소년수련관 운영위원장,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 관장, 송광사 기획국장, 봉은사 부주지, 14대 중앙종회의원 등을 역임했다. 현재 15대 중앙종회의원과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봉은사 상임이사 맡고 있다.

2010년 우수불서 10종 발표

大賞 ‘불교미술의 해학’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문화부장 효탄스님)는 불교출판 의욕을 고취시키고 출판문화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 해 동안 국내에서 초판 발행된 불교관련 출판물을 대상으로 우수불서를 선정 발표했다.

‘제7회 불교출판문화상’ 시상식은 오는 11월 30일(화) 오후 6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내 전통문화예술공연장(지하2층)에서 개최되었다.

불교출판문화상은 한 해 동안

(‘09. 10. 1~’10. 9. 30) 국내에서 초판 발행된 불교관련 도서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올해는 45개 출판사에서 총 100종이 접수되어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예년의 32개 출판사 75종에 비해 출판사의 참여는 물론 도서 참여가 대폭 확대되어, 불교출판 문화상의 위상이 높아지고 불교출판 활성화의 전기도 마련되었다는 자평이다. 심사는 김호성(심사위원장/동국대학교 교수), 이미령(북 칼럼니스트), 회경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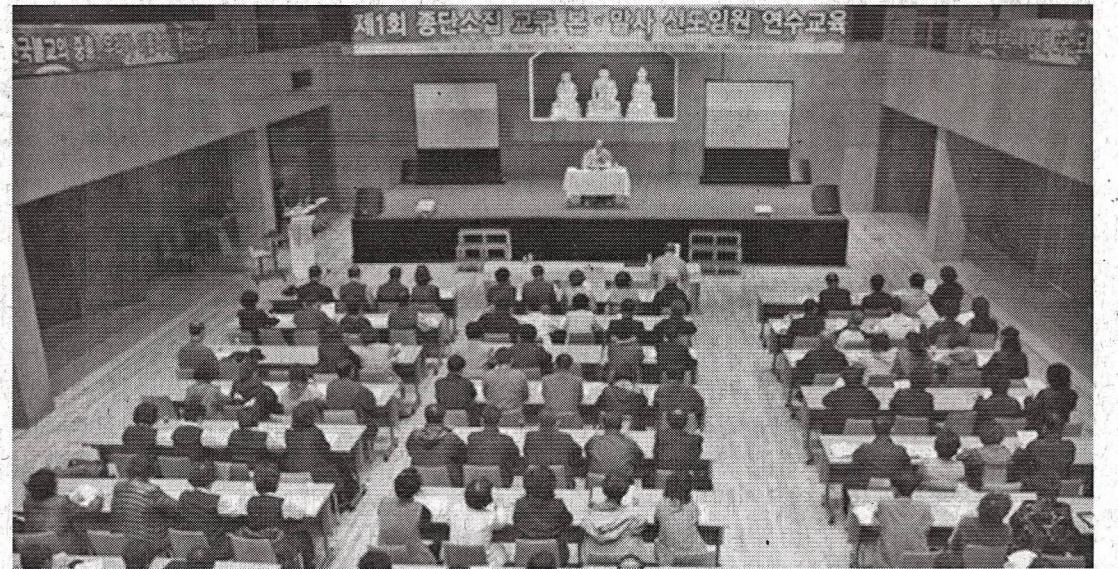
님(삼선승가대학 강사), 이현수(독서가), 김종찬(불교신문 출판담당 기자)씨가 담당했다.

대상 상금은 500만원, 우수상은 200만원이며, 올해의 불서에 선정된 나머지 7종의 도서는 각 5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올해의 불서 10’에 선정된 도서는 일선사찰은 물론 일반인에게도 적극적으로 홍보될 예정이다.

〈제7회 불교출판문화상·올해의 불서10 선정 도서〉

대상	불교미술의 해학	관중서	불광출판사
최우수상	그대가 보는 적은 그대 자신에 불과하다	고미송	푸른사상
우수상	왜 석가모니는 왕자의 자리를 버렸을까 근현대 한국불교명저 58선 단집 절집을 물고 물고기 떠있네 초기불교산책 1,2 초등학생을 위한 부처님 이야기 커피와 달마 한국인의 죽음과 사십구재	박금표, 박선영 윤창화 신대현, 심대섭 원철 김재성 양태석 성재현 구미래	자음과모음 민족사 대한불교진흥원 뜰 한언 능인 한결을 더 민속원
특별상	역주 조선불교통사	법산, 효탄, 김진무, 한상길, 김치은 외	동국대출판부



▲ 전통불교문화원의 대강당에서 조계종 신도임원교육 모습

본말사 신도 임원연수교육 실시

조계종, ‘신도교육과 조직화’ 집행부 핵심과제 실현

조계종 포교원(원장 해종 스님)은 11월 6, 7일 양일 간 전통불교문화원에서 제1회 종단 소집 교구본·말사 신도임원 연수교육을 시행했다.

이번 연수교육은 사찰 신도회 임원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체계적인 신도회 조직의 틀을 갖추기 위해 종단에서 직접 주최한 재교육으로 ‘신도교육과 조직화’라는 종단 33대 집행부의 핵심과제 실현을 위해 개최됐다.

교육원장 현웅 스님은 ‘대한불교조계종단의 이해와 과제’를 주제로 한 강연에서 “조계종은 한국불교의 역사와 전통, 불교자산을 승계한 종단으로 신도들은 사찰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 한다”며 “사찰 신도회를 구성하고 신도들이 사찰운영위원회에

적극 참여할 때 명실상부 한국불교의 중흥을 이룰 수 있다”고 했다. 또 포교부장 계성 스님은 ‘신도교육과 조직화’를 주제로, 윤여준 한국 지방발전연구원 이사장은 ‘한국사회의 변화와 불교의 역할’을 주제로 강의했으며, 교구신도회 활성화 방안과 교구신도회 조직 등을 주제로 한 모둠별 토론도 이어졌다.

회향식에서는 우수교구신도회에 대한 포상이 진행됐으며 △삼보와 종단 외회 △신도회 활성화와 발전에 헌신 △자비행과 보시행 생활화 실천 △종교편향과 차별에 단호히 대응할 것 등을 다짐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조계종과 중앙신도회는 종단소집 연수교육의 교육성과를 조직화하고 신도조직의 기능이 강화되도록 신도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진리의 세계, 불보살의 세계...

만다라의 세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일체제법의 본질을 원만하게 성취한 불보살님의 장엄도량을 그림으로 나타낸 만다라를 가정내에 모시고 수행정진의 지표로 삼으실 수 있는 인연을 맺으십시오. 장엄한 불보살님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태장계 만다라 ***

태장계 만다라는 ‘대일경’에 근거하여 그려진 대개대비야인 부처님의 마음을 모태에 비유하고 그 모태 안에서 인간의 불성을 생장시켜 나가는 활동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태장계 만다라는 중앙의 중대팔염원을 중심으로 12대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불보살, 명왕, 제전, 신등 모두 414존이 모셔져 있습니다.

*** 금강계 만다라 ***

금강계 만다라는 ‘금강장경’에 근거하여 그려진 중생의 부처의 경계, 즉 깨달음에 이르는 과정과 동시에 부처님께서 중생을 교화하는 활동을 단계적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금강계 만다라는 중앙의 생신의를 중심으로 9개의 작은 만다라로 구성되어 있고 불보살, 명왕, 제전, 연경전불등 모두 1,461존이 모셔져 있습니다.

*** 구성표 ***

◆ 사이즈 및 가격 (태장계, 금강계 만다라 가격 동일)

- ▶ 1000 x 1000 1개 650,000원 (액자 포함)
- ▶ 750 x 750 1개 500,000원 (액자 포함)
- ▶ 500 x 500 1개 300,000원 (액자 포함)
- ▶ 250 x 250 1개 200,000원 (액자 포함)

* 문의 : 통리원 T. 02-552-1080~3
* 계좌번호 : 우리은행 1005-480-047811 예) 불교총지총

불교총지총

매년 10만명 군포교 활성화 가능

육군훈련소 호국연무사 신축불사 착공



기존 법당의 2.5배 규모인 이번 법당 신축은 1년 6개월의 시공기간에 총 120억 여원이 소요된다. 군종교구는 2012년 4월 경으로 완공 시점을 잡고 있으며 불사 후 1500명을 수용가능 한 기존 법당은 장병 교육 및 휴식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복합공간으로 활용된다. 지금까지 모금된 불사비는 47억 5000만 원으로 이르는 보시자, 전국 각지와 해외 등 각계에서 불자들이 십시일반 정성을 모은 것이다.

이날 착공식에서는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익명의 불자가 총무원으로 보내온 2억 원을 전달했으며 원로의원 종하 스님이 3000만 원을, 국군불교총신도회 회장을 역임한 김태영 국방부장관도 금일봉을 전달했다.

한편, 군승의날은 1968년 최초로 1기 군승이 입관한 것을 기념하고 군포교 활성화를 다짐하기 위해 제정된 날이다.

1969년 8월 최초의 군법당 육군 중앙법당(현 국방부 원광사)이 문을 열었으며, 1972년 군승단이 창립됐다. 군승단과 군불교위원회 형태로 운영되다가 2005년 7월 군종교구가 출범했다.

▲ 호국연무사 신축불사 착공식에 스님들과 군장교들이 동참했다.

군 포교 활성화를 위해 그동안 진행되었던 논산 육군훈련소 호국연무사 신축불사가 드디어 착공식을 가졌다.

조계종 군종교구(교구장 자광)는 11월 19일 논산 육군훈련소 신축부지에서 법당 착공식을 개최했다. 42주년 군승의날 기념법회를 겸해 봉행된 법당 착공식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

님, 원로의원 종하 스님, 호계원장 법등 스님, 포교원장 혜총 스님을 비롯해 종단 주요 스님들이 대거 참석했다. 또 136명 군법사 전원과 국군불교총신도회 소속 장성 등 군 포교 관계자 2000여 명이 참석해 불교 중흥을 서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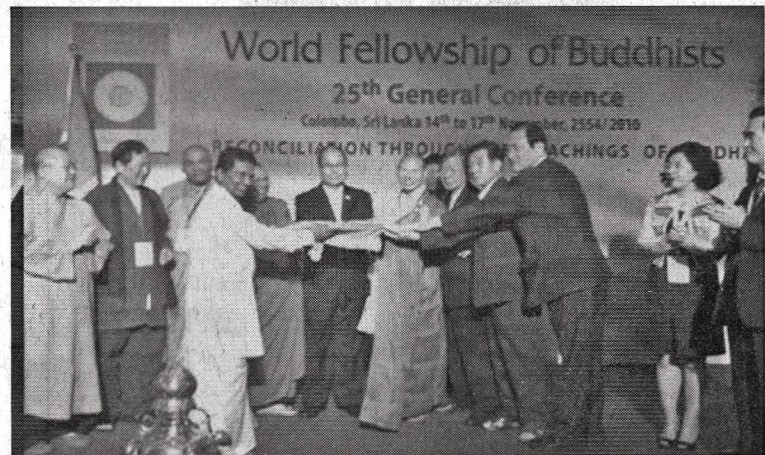
군종교구장 자광스님은 “호국연무사를 가장 안전하고 튼튼한

포교도량으로 조성해 군포교의 중요 거점으로서 한국불교의 희망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새로 지어지는 법당은 5,000㎡(1510평)의 단층 극장식 구조로 정면 3,500석에 최대 5,000명이 수용가능하며 매년 10만여 명의 젊은 불자들을 양성할 수 있는 초대형 전법도량이 될 전망이다.

2012년 WFB총회 한국에서 개최

22년만에 연등축제와 여수 EXPO기간에 열려



▲ 2012년 개최는 조계종과 조계종 중앙신도회 공동으로 개최권을 얻었다.

조계종 총무원은 2012년 한국에서 세계불교도 우의회(World Fellowship of Buddhist, 이하 WFB) 총회가 개최 된다고 밝혔다. 이번 2012년 유치는 스리랑카에서 열린 제25회 WFB 총회에서 다음 회를 한국에서 열기로 결정 했다. 한국은 지난 1990년 제17차 WFB 총회를 개최한 후 22년 만에 대형 국제 불교대회를 열게 됐다.

WFB 총회 개최와 관련 조계종 측은 “이번 한국유치는 조계종과 조계종 중앙신도회 공동유치 노력이며, 2012년 5월 여수 EXPO와 연등축제 기간에 맞추어 개최 된다”고 밝혔다.

2012년 WFB대회에서 범세계적 화두인 ‘인류의 번영과 환경보존’ 등에 대한 정보와 문화교류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조계종 흥민서 총무원 사화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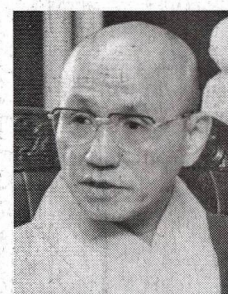
국제팀장은 “세계불교도우의회와 한국유치를 계기로 국제사회에서 한국불교의 위상이 올라가고 연등축제, 템플스테이, 사찰음식 등 한국불교 문화가 널리 알려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스리랑카에서 열린 이번 총회에서 한국 측은 새 집행이사 8명 중 조계종 국제교류위원 진철스님이 연임됐고, 신설된 사무차장직에 이치란 국제교류위원이 임명되었다.

한편 WFB는 1950년 5월 스리랑카에서 종파를 초월한 27개국 불교계 대표가 모여 창립된 세계 최대의 국제 불교 회의로 금년으로 60주년을 맞았다. 현재 40개국 153개 지부가 회원지부로 등록돼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들고 불교도간의 일치와 단결을 도모, 사회에 부처님 가르침을 실현시킬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총회는 매년 2년마다 열리고 있다. 한국은 조계종과 중앙신도회 등 7개 지부가 등록되어 있다.

월주스님, 제1회 민세상 수상

사회통합을 위한 공로 인정



조산일보, 논설주간 등 심사위원회는 “월주 스님이 불교계에서 폭넓은 대민봉사활동을 하는 한편, 민주화유구로 분출된 80년대

말부터 시민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영호남 지역감정 해소와 소외계층을 위해 앞장섰다”고 설명했다.

심사위원들은 월주 스님은 IMF구제 금융위기 당시 기독교의 고 강원용 목사, 카톨릭의 고 김수환 추기경과 함께 실업극복

지원에 적극나서는 등,식량난을 겪는 북한주민은 물론 미얀마와 캄보디아 등 저개발국의 빈민구호와 아동교육 지원사업도 활발

하게 진행해 왔다. 지금도 ‘함께 일하는 재단’ 이사장으로서 실업자에 대한 취업알선 및 교육과사회적 기업 등 일자리 창출 자원에 헌신하는 등 그동안 우리 사회의 통합을 위한 공로가 인정된다고 평했다.

한편, 민세상은 평택출신의 항일민족운동가 민세 안재홍 선생(1891~1965)의 일생에 걸친 사회통합과 한국학진흥 정신을 선양하기 위해 제정한 것이다.

천태종 구인사, 광명전 봉불식 거행

7년 대작불사 끝에, 수행공간·간부교육장 활용



▲ 구인사 광명전 모습

한국 천태종 중창조 상월원각 대조사에 의해 건립된 천태불자의 수행요람 광명당이 7년 여간의 대작불사 끝에 웅장한 모습의 광명전으로 새로 태어났다.

천태종(총무원장 정산 스님)은 11월 13일 단양 구인사 광명전에서 ‘봉불식 및 낙성법요식’을 봉행했다. 이날 봉불식에는 조계종과 태고종, 진각종 등 각 종단의

대표들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충북도지사, 송광호 국토해양위원장 등 각계 인사들이 직접 참석 혹은 축사로 광명전 낙성을 축하했다.

지난 1979년 48칸 규모로 지어져 20여 년간 천태불자들의 수행과 신행의 중심지였던 광명당은 지난 2001년 기공식 후 2003년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해 올해 광명전으로 완공되었다. 신축된 광명전은 대지 6,067㎡(1835평)에 지하2층 지상4층 규모로 4층 소법회실에 2천명, 5.6층 대법회실에 6천명 등 한 번에 최대 8천명을 수용할 수 있는 국내에서 보기 드문 대 도량이다.

진각종 스리랑카 외국어학교 개원

내년부터 중학교 신입생 교육



▲ 진각종 관계자와 네곰보지역 담당자들이 개원식 테이프를 자르려고 한다.

진각종(총리원장 혜정 정사)은 11월 16일 스리랑카JGO 네곰보센터에서 진각회당의국어학교 개원봉사를 봉행했다. 진각종 총리원장 혜정 정사는 축사를 통

해 “스리랑카JGO센터 진각회당의국어학교 개원봉사가 1999년 JGO센터를 설립해 10여 년 동안 진각종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의 결과”라고 말했다.

이날 진각회당의국어학교 개원봉사에 WFB 한국본부 관계자들도 참석해 학생들에게 내의를 전달했다. 지난해 10월 기공식을 갖고 1년여만에 1차 공사를 마무리하고 개원봉사를 가진 진각회당의국어학교는 3년 간 순차적으로 500명 이상의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9,663㎡ 규모의 3층 건물을 건립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중학교 신입생을 받으며 유치원과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을 기본으로 영어교육과 사 양성프로그램,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센터, 지역공동체의 장마련 등을 목적으로 향후 센터 내에 개설될 심인당과 연계해 학생과 지역민들이 심인진리를 수행하고 실천하도록 한다는 계획도 세워두고 있다.

불교총전은 통불교적인 입장에서 현교(顯敎)와 밀교(密敎), 대승(大乘)과 소승(小乘)의 여러 경전 중 그 핵심을 가려 뽑아 편찬되었다. 이 책은 불자는 물론 일반인들에게도 불교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한 길잡이가 될 것이다.

불교총전

국판/ 정가 35,000원/ 불교총지중 출판부

육자대명왕진선(옴마니반메훔)의 유래와 공덕을 설한 경전으로 본 경을 지니기만 하여도 무량한 복덕과 안락을 얻을 수 있다.

불설대승장엄보왕경

변형국판/ 정가 7,000원/ 불교총지중 출판부

총지종의 소의 경전. 반야 사상에 기초하여 보살이 닦아야 할 여섯가지 바라밀을 상세히 설명하고 이를 실천, 궁극적 지혜와 깨달음에 이르는 길을 제시해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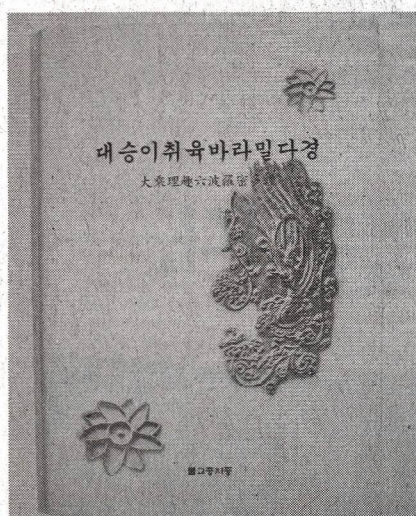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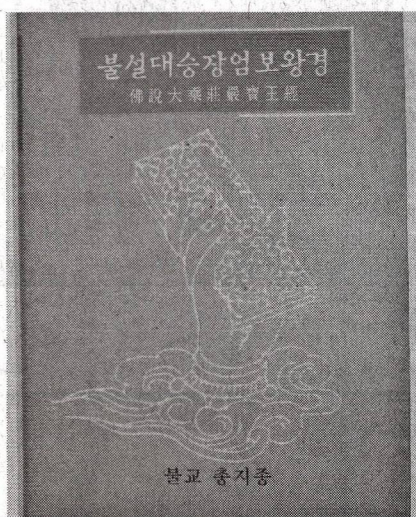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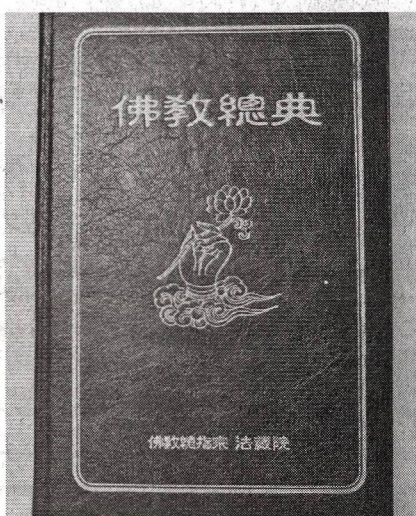
대승이취육바라밀경

국판/ 정가 15,000원/ 불교총지중 출판부

△입교개종 △교의대강 △옴마니반메훔 △총지종 지표 △밀교란 무엇인가 △밀교의 역사 △육합상 해설 등의 목차로 구성돼 있다. 갈라 사진과 상세하고 친절한 설명이 곁들여져 있어 총지종의 전반에 걸친 이해가 가능하다.

정통밀교불교총지중

변형국판/ 불교총지중 출판부



풍경소리

도둑과 도둑님



수행입니다.
모든 것은 분리된 것이 아니기에,
우리를 지탱하는 나와 너 가운데
한사람이 잘못되면
우리는 함께 불행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대호스님 (화인선원장)

아름다운 관계



어느 젊은 스님이 인사를 드리자 큰스님은
“야, 이 도둑놈아!”하고 고향을 치시며
사라져버렸습니다.
한 달쯤 후에 만난 큰 스님의 답례는
똑같았습니다.
며칠 후 큰 스님과 다시 마주친 젊은 스님이
작정하고 따져 물었습니다.
“스님, 제가 왜 도둑놈입니까?”
“아님 말고!”
큰 스님의 짧은 대답에
허탈해진 그 스님은 평생
“야! 이 도둑놈아!”가 화두話頭가 되어
자신을 살피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도둑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밥도둑, 시간 도둑, 약속 도둑, 지식 도둑,
은혜 도둑, 양심도둑
하나 같은 도둑들이 도둑놈인지도 모르고
'도둑님'으로 시치미 떼고 살고 있습니다.
이정우 (군승법사)

분리 되어 있지 않기에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은
남의 잘못이 아니라
그 속에는 나의 잘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벌은 꽃의
꿀을 따지만
꽃에게 상처를
남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꽃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꽃을
도와 줍니다.
사람들도 남으로
부터 자기가
필요한 것을
취하면서
상처를 남기지
않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 것만을 취하기 급급하여
남에게 상처를 내면
그 상처가 썩어
결국 내가 취할 근원조차
잃어버리고 맙니다.
사람과 사람사이에도
꽃과 벌 같은 관계가 이루어진다면
이 세상엔 삶의 향기가 가득하지 않을까요.
장용철 / 시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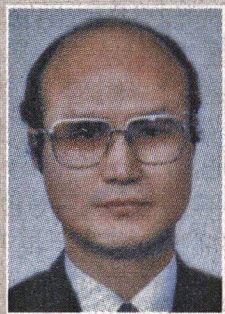
내용참조: “불교총전” 교법편 24p-10

이달의 명상

마음을 가다듬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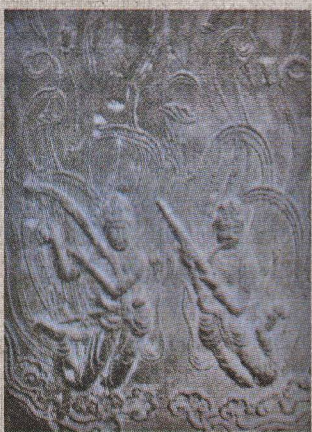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가정을 행복하게 하고 모든
사람들을 평안하게 하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마음을 가
다듬어야 한다.
마음을 가다듬으면 진리를
찾을 수 있고 지혜와 덕은
절로 그 몸에 갖추어진다.



회장 김 동 운
(관성사 교도)

판촉물 일체

최신형 인쇄기로 고품질의 인쇄물을
기획에서 납품까지 원스톱시스템으로 고객을 만족시켜드리고 있습니다.



▲ 비현상

- (주)윤일문화는 상품을 팔지 않습니다. 고객의 의도를 소비자가 가장 가깝게 느낄 수 있도록 인식을 심어주는 것, 고객과 소비자의 사이를 가장 가깝게 만드는 것이 바로 (주)윤일문화가 하는 일이자 (주)윤일문화만의 전략입니다.
- (주)윤일문화는 언제나 한 걸음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기존의 광고, 마케팅, 세일즈 프로모션 등의 회사보다 앞설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생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 (주)윤일문화는 세계 최고의 인쇄기인 최신형 하이델베르크 5색기와 4색기를 보유하고 있어 고품질의 인쇄물을 기획에서 납품까지 원스톱 시스템으로 고객을 만족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고객과 소비자를 하나로 만드는 전략, 고객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전략, 소비자가 만족할 수 있는 전략을 펼칩니다.
- (주)윤일문화는 전국판촉물제조협회와 업무 제휴하여 고품격의 판촉물을 신속하고 저렴하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 최신형인쇄기-하이델베르크5색기

ONE-STOP SYSTEM

인쇄와 판촉물의 모든 것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Tel. 02-498-6161T(代) Fax. 02-469-9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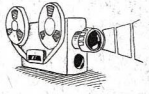
주식회사 윤일문화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2가 3동 277-47

E-mail : orient-kim@hanmail.net

Webhard : dongw(ID), 4567(PW)





영화에서 불교보기 ⑭ /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인셉션>

‘생각 빼내기’와 ‘생각 심기’

<아바타>와 함께 2010년 극장가를 점령했던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인셉션>은 매우 복잡한 플롯의 영화입니다. 그다지 머리가 좋지 못한 난 이 영화를 보면서 내내 하품만 했습니다. 그렇지만 꿈과 현실의 관계를 끈기 있게 파고드는 집요함이 마음에 들었기에 2회차 관람을 시도했습니다.

어려운 수학공식을 대했을 때의 난감함은 조금씩 사라졌습니다. 두 번째 관람에서 영화는 꽤 많은 것을 던져주었습니다. 특히 불교신자라면 이 영화를 통해서 가장 어려운 개념 중의 하나인 ‘합장식(含藏識)’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만법연기의 근본이 되는 ‘합장식’이 영화에서는 ‘림보’라는 개념으로 표현됩니다. 림보는 무의식의 가장 저변에 위치하며 한 인생을 존립케 하는 중심 생각을 품고 있습니다. 합장식의 종자에 의해 현상이 존재하고, 또한 윤회가 가능해진다는 불교의 생각과 완전히 일치합니다.

그러므로 개인을 바꾸기 위해서는 이곳 림보에서 새로운 생각의 씨앗을 심거나 기존의 생각을 빼내는 작업이 필수적입니다. 이렇게 림보에서 생각을 교체하자 영화 속 인물은 자신을 결심하기도 하고, 자신의 재산을 해체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림보에 침투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재워야하고 그의 꿈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 기발한 아이디어가 이 영화 <인셉션>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입니다.

<베트맨 바킨즈> <다크 나이트> 등을 통해 오락영화에서도 놀라운 재능을 보였지만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은 <인셉션> <메멘토> 등을 만든 작가주의 감독입니다. 이번 작품 <인셉션>은 놀란 감독의 이런 두 가지 장점이 잘 버무려진 아트 블록버스터입니다. 전형적인 할리우드 상업영화의 결을 입고 있지만, 또 그렇게만 단정할 수 없는 난해한 구조와 주제를 갖고 있는 영화로서 오락영화의 한 단계 업그레이드 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화 <인셉션>에서 코브는 타인의 꿈속에 침투해 상대의 생각을 훔치는 데 탁월한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색다른 임무를 맡게 됩니다. ‘인셉션’이라고, 생각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생각을 집어넣는다는 발상은 상대를 나의 의도대로 움직이게 하고자 할 때 주로 쓰는 수법으로, 영화 <올드보이>에서의 복수도 이런 식의 ‘생각 집

어넣기’를 통해서 이뤄졌습니다.

그런데 타인에게 생각을 집어넣는 일은 그렇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올드보이>에서는 15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스피드에 익숙한 현대사회에서 그토록 오래 기다리는 것은 시간 낭비입니다. 영화에서는 오직 10시간이 주어질 뿐입니다. 10시간 안에 상대의 머릿속에 의도하는 생각을 집어넣어야 합니다. 외과수술을 통해 상대의 머릿속에 침을 집어넣듯이, 그래서 영화에서는 공공질거방에 내재된 기계장치와 10시간 동안은 어떤 자극에도 잠잘 수 있는 약물이 필요했습니다. 이런 것들로 10시간 만에 새로운 인간으로 태어날 수 있다는 상상, 참으로 참신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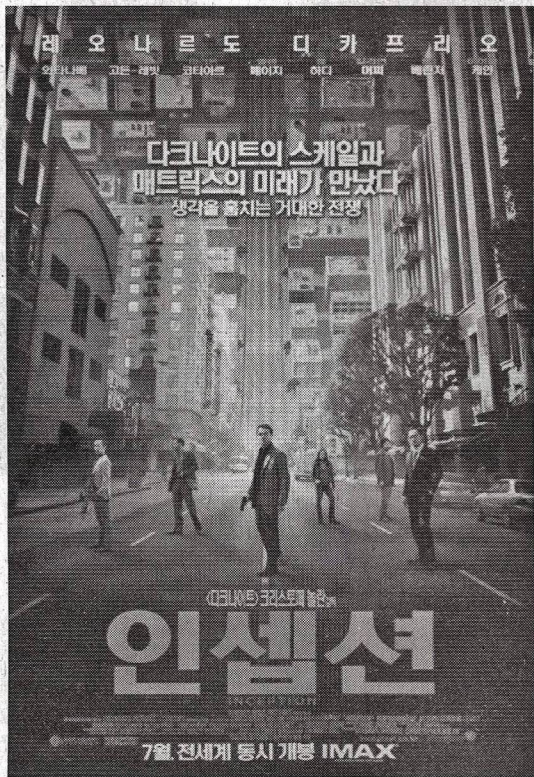
그런데 영화는 의외의 방향으로 흐릅니다. 코브가 의뢰인의 부탁을 받고 여러 사람의 도움을 받아 피 의뢰인의 림보로 침투해서 ‘생각 심기’에 성공한다는 게 밖으로 드러나는 줄거리만 정작 중요한 것은 생각 빼내기(추출, extraction)입니다. 원래 목적은 인셉션(inception)이었는데 ‘영화는 이상하게 ‘추출’에 집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생각 심기’보다는 ‘생각 빼내기’ 즉 트라우마 제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주인공 코브(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의 트라우마는 아내 멜(마리옹 코티유)입니다. 멜은 코브와 마찬가지로 꿈속을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인물이었지만 꿈속을 현실로 착각하는 아내를 위해 코브는 아내의 무의식에 ‘이곳은 현실이 아니다. 깨어나기 위해서는 죽어야 한다’는 생각을 집어넣었습니다. 이런 결과로 아내는 현실 또한 꿈속으로 착각하게 됐으며, 자신의 아이들 또한 현실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다가 마침내 자살해버리고, 이

로 인해 코브는 아내 살해범이 돼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타국을 떠도는 신세가 됩니다.

결국 여기서 집중해야 할 것은 트라우마입니다. 코브의 트라우마는 아내에 대한 죄책감입니다. 자신 때문에 아내가 죽은 것이니까요. 직접적으로 등을 떠밀어 죽인 것은 아니지만 그의 생각 집어넣기, 인셉션 때문에 아내가 죽었기 때문에 그는 깊은 상처를 안게 되고, 그의 삶은 결코 안정을 찾지 못하고 부유하게 된 것입니다.

아내 멜은 불쑥불쑥 나타나서 그의 삶을 방해했습니다. 현실에 충실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코브의 이런 문제를 해결해주는 존재는 아리아드네(엘렌 페이지)라는 설계사입니다. 그리스신화에서 실타래를 제공함으로써 테세우스를 미궁에서 구해낸 그 아리아드네와 같은 역할을 담당합니다.

영화 속 아리아드네는 코브가 이끄는 ‘인셉션’ 팀에 가담하면서 코브의 문제를 간파하고 코브의 꿈속으로 침투해 멜로부터 코브를 구해냅니다. 코브의 무의식에서 죄의식을 추출해내게 됩니다. 아내의 죄의식에서 벗어난 코브는 한결 밝아진 얼굴로 집으로 돌아와 아이를 만납니다.

코브와 관련한 트라우마와 함께 영화의 다른 축을 형성하는 것이 피의뢰인인 피셔의 트라우마입니다. 피셔는 거대 기업의 상속자로 아버지와

사이 미묘한 갈등이 존재합니다. 그는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했다고 여기고, 아버지는 자신에게 실망했다는 생각에 시달립니다. 즉 아버지와

의뢰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먼저 수행해야 할 과제가 피셔에게서 아버지에 대한 트라우마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물론 영화는 의뢰인의 주문대로 피셔에게서 상속받은 재산을 해체시키고 싶다는 생각을 갖게 하려는 목적을 향해 나가지만 근본적으로는 피셔의 트라우마가 림보에서 제거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데 치중합니다.

림보에서 아버지와 화해한 피셔는 한층 밝아집니다. 비록 재산은 손실을 보았지만 그는 더 행복해졌습니다. 바로 여기에 영화가 ‘생각 심기’가 아닌 ‘생각 빼내기’에 집중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불교의 가치관과 일치하는데, 합장식에 존재하는 모든 씨앗의 제거야말로 우리를 윤회로부터 구해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불교의 수행방법인 참선이나 염불, 주력 등 대부분의 방법이 모두 인간의 관념을 빼내는 데 목적이 있는 것만을 봐도 생각 빼내기가 얼마나 인간의 행복과 자유에 중요한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놀란 감독은 꿈이라는 가상공간을 통해서 인간이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는데 그게 바로 트라우마, 생각 빼내기라는 걸 지혜롭게 알아챈 것입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피셔도 그렇지만 코브의 트라우마가 ‘죄의식’이라는 것입니다. 죄의식은 서양문화의 근간을 이루는 사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영화가 이 죄의식으로부터 벗어나는 데 집중한다는 뜻은, 그간 자신들을 지탱해온 종교에 대한 피로감을 표현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서양의 종교가 ‘죄의식 심기’에 치중한다면 불교는 ‘죄의식 빼내기’에 관심이 많다고 보는데 마침내 영리한 현대인들은 ‘생각 빼내기’가 자신에게 더욱 유리하다는 걸 알아낸 것입니다.

지난번에 다루었던 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아바타>도 그렇지만 지금 언급하고 있는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인셉션> 또한 불교 사상 위에서 창의력을 발휘한 영화들입니다. 이들 두 감독으로 말할 것 같으면 아마도 현재 할리우드 영화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감독들이고, 또한 그들이 만든 <아바타>나 <인셉션>은 2010년도 최고의 흥행작들입니다. 그런데 이들 영화가 불교적 사상 위에서 만들어졌다는 게 참으로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부처님의 사상이 세대를 뛰어넘는 진리라는 걸 의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 김은주(자유기고가)

새로운 엘리엇

지은이 : 그레이엄 가드너(영국 신예작가)

동해중학교 1학년 1반 강지훈



유난히 어두운 책 표지에 빨려 들어가는 듯이 한 남자아이가 있습니다. 아이의 얼굴 또한 잔잔한 갈색으로 처리되어 왠지 슬퍼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책 제목과 너무나 다른 모습

이어서 좀처럼 내용을 짐작할 수 없으니까 더욱 읽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아무 의욕도 없이 밤낮 TV만 보는 아버지와 공장 야로원에서 주야로 일을 하며 피곤에 지쳐있는 엄마 사이에서 엘리엇은 혼자서 자신의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같은 학교 친구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면서도 호소할 처지 못한 채 오로지 자신의 몸으로 견뎌내야만 했습니다. 급기야 너무 심하게 구타당해 엄마에게 그 사실이 알려지고 전학을 가게 됩니다. 그 곳에서 엘리엇은 살아가기 위해 스스로 남의 눈에 띄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조용히 학교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던 절대로 다른 학생의 표적이 되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수영 반에서 눈에 띄게 수영을 잘 했고 그것을 눈여겨본 ‘수호자들’이란 단체의 심부름꾼, 올리버의 눈에 띄어 엘리엇의 모든 행동이 수호자들의 귀에 들어가게 됩니다. 엘리엇은 자기도 모르게 수호자들의 일원이 되고 어느 순간 자기가 당했던 것보다 더 심하게 다른 아이들에게 가혹한 왕따 행위를 저지릅니다. 엘리엇은 순간순간 자신들이 하는 행동이 결코 옳지 못한 것인 줄 알면서도 어쩔 수 없다는 자기 최면으로 그 무리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다 자신의 행동에 문제점을 깨닫고 스스로 자신의 신념을 따르기로 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왕따가 사회적인 문제로 많이 거론됩니다.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는 어디든 작은 마찰이 있을 수 있고 왕따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생활하다 보면 모든 사람들의 생각을 존중해 줄 수 없고 그로 인해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생각까지 나와 같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만 인정하면 우리가 속해있는 어떤 사회에서도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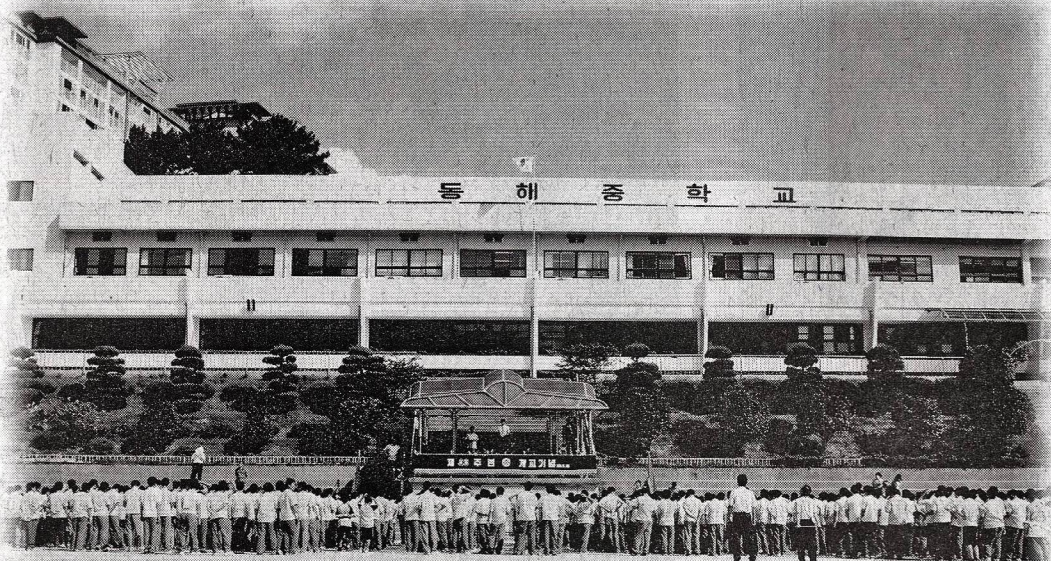
엘리엇이 전에 다니던 학교에서 친구들로부터 무차별적으로 공격을 당할 땐 불쌍했지만 전학을 하고 어느 순간 가해자로 변한 엘리엇이 비겁하게 생각했습니다. 왕따가 두려워서 남의 눈에 띄지 않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으면서 뻔뻔하게 다른 친구를 왕따시켰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수호자들이 ‘1984’라는 소설의 내용까지 등장시키며 자신들의 행동을 합리화시키는 것 같아서 화가 났습니다. 그러나 엘리엇이 자신을 돌아보며 자신의 행동의 잘못됨을 깨닫고 과감하게 일어설 땐 자기가 왕따를 당해왔기 때문에 그런 용기가 생긴 것 같아 왕따에 대한 인식을 조금은 바꿔놓은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행동에 갈등하던 엘리엇이 “그 사람은 체제에 복종하지 않는 길을 선택하고 말지. 신념을 따르고 위험을 감수해. 그래서 자유를 얻는 거야.”라는 루이즈의 말을 떠올리며 자신의 선택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에서, 수호자들은 그 말을 왕따를 시키는 데 사용했지만 엘리엇은 자신의 또 다른 모습을 찾는 데 의미를 두어서 희망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1984’ (조지오웰 저)

『동물농장』과 함께 조지 오웰을 대표하는 작품으로, 전체주의라는 거대한 지배 시스템 앞에 놓인 한 개인이 어떻게 저항하다가 어떻게 파멸해 가는지, 그 과정과 양상, 그리고 배후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디스토피아 소설이다. 주인공 윈스턴 스미스는 당의 통제에 반발을 느끼고 저항을 꾀하지만, 오히려 함정에 빠져 사상경찰에 체포되고, 혹독한 고문 끝에 존재하지 않는 인물 ‘골드스타인’을 만났다고 자백하고, 결국 당이 원하는 것을 아무런 저항 없이 받아들이는 무기력한 인간으로 전락한다.

원대한 꿈을 갖고 실력을 연마하는 충지인!



나라의 희망이요, 꿈이요, 이상인 청소년을 위한

전통있는 역사의 터전

교 훈 신 의
성 실
정 직
교 목 보리수

충지중 종립 관음학사 동해중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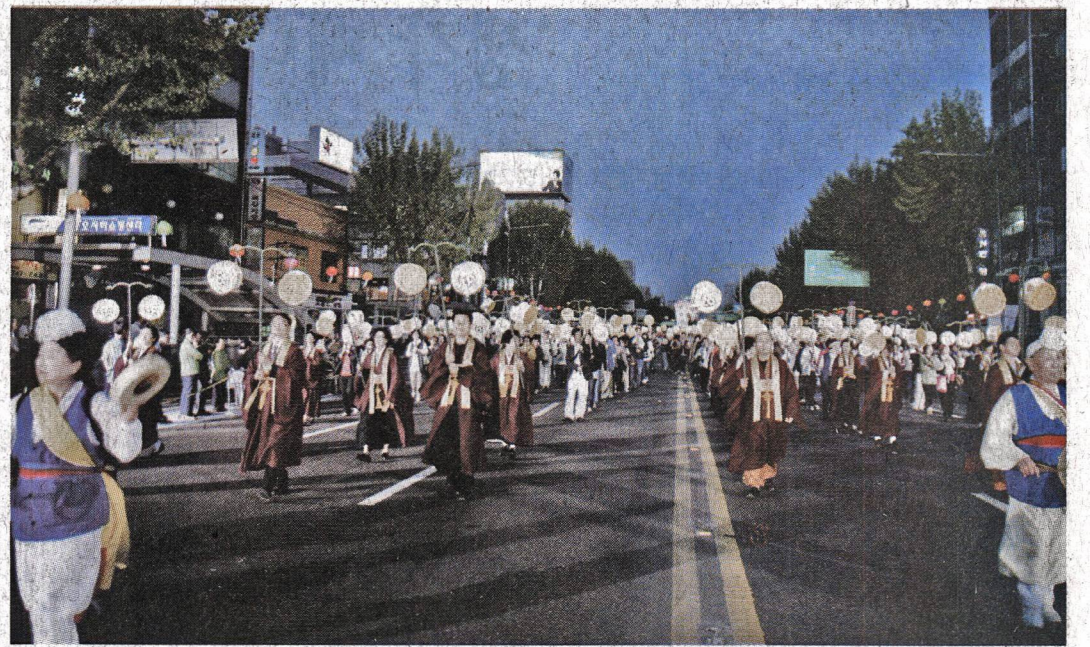
부산시 동래구 명륜동 8-25 교무실 : 051-555-4458 / 행정실 : 051-556-0281 / 교장실 : 051-552-0011



2010년 불교총지종 주요 행사



◀ 지성정사가 총지종 제16대
통리원장에 취임했다.
취임식 후 효강 종령 예하와
원승 전임 통리원장, 신정희 간
부들이 축하했다.



연등축제에 참가한 서울경인 교구
스승들이 종로거리를 연등불로 밝히
면서 부처님 오신날의 메시지를 전했다.



▲ 하반기 49일 불공을 마친 후 각 교구별로 호국안민법회를 가져 스승과 교도
들은 국가의 안녕과 국민들의 평안을 기원하였다.



▲ 올해로 4번째를 맞이하는 국제 재가 불교 지도자 대회는 총지종을 외국 불교
지도자에게 알리는 계기가 되었으며, 향후 다른나라에서 개최 될 정도로 위상이
높아졌다.



▲ 추계강공회에서 효강 종령 예하는 '새로운 종풍운동'을 전개 할 것을 스승들
에게 강조 했다.

11월은 문화의 달, 행사 이모저모



▲ 제3차 정책토론회에서 전국의 스승들이 모여 상례제 및 천도불사에 대해 의논했다.



▲ 총지종 마니합창단이 2010 불교창작 합창제에 참가했다.



▲ 정각사 바라밀 아동센터 학생들이 해피데이 축제에서 그림을 보고 있다.



▲ 통신원들이 종보 활성화에 대하여 토의를 마치고 단체사진을 찍었다.



▲ 이웃사랑 음악회에서 전정부각자와 한영숙보살(총지사)이 오카리나를 불고 있다.



▲ 동해중학교 총동창회는 가족과 함께 130여명이 금정산 가을산행을 했다.



▲ 밀인사 원당정사는 자연보호의 불교적 의미를 교도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 총지 문화 탐방회원들이 고려불화 관람 후 G20처럼 포즈를 취했다.



▲ 총지사 교도들이 김장을 담고 있으며, 일부는 독거노인들에게 보시했다.



▲ 이육희 교도(총지사)가 교도에게 이육을 보시하고 있다.



▲ 고려불화 대전 관람 후 경천사지 10층탑에서 기념사진을 찍은 관성사교도.



▲ 총지사 김은숙 회장집에서 조상영식과 가족사랑을 위한 가정불공이 있었다.